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가구주의 통제위치에 따른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관한 연구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전 영 호

가구주의 통제위치에 따른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소 연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전 영 호

전영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12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지속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진입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학계에서도 은퇴준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은퇴준비 측면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에 따른 연구가 다수 진행돼왔으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개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은퇴준비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라는 개인특성에 관심을 가진다. 통제위치는 인간이 갖는 일반화된 기대로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자신에게 있는지, 또는 외부로부터 비롯되는지에 따라 내적 통제위치 혹은 외적 통제위치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행동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위치가 가계의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의 자산과 부채 보유가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통제위치가 이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자료(2015)를 활용하였으며 만 50세에서 만 74세 은퇴부부가구 가구주 중 남성 가구주 1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은퇴준비행동은 사적인 은퇴준비행동을 의미한다. 이에 은퇴를 위해 경제적 은퇴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집단 중 은퇴준비수단으로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과 같이 공적인 은퇴준비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하고, 개인에게 가입과 보유의 책임이 있는 개인연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의 사적인 은퇴준비방법을 택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은퇴자금충분성은 부부가 기대여명까지 생존 시 필요한 은퇴필요자산보다 많은 은퇴자산을 보유하였는지로 정의된다. 은퇴자산은 금융자산, 자가주택 시가,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시가, 임차보증금, 총 연금액에서 총부채를 제하여 추정하였으며 은퇴필요자금은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생활자금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행동을 했음에도 은퇴자금이 불충분한 가구가 은퇴자금불충분 집단 내에서 31.1%에 달했다. 해당 집단은 은퇴준비행동을 하였으나 충분한 준비를 못한 집단이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현재 은퇴 준비 중인 가구들에게 성공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교육 및 재무설계를 통해 자신의 은퇴준비행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자산, 공적연금, 부채를 보유한 가구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금융자산 보유자일수록 사적연금, 저축 등의 은퇴준비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김경아, 2013), 공적연금 가입자일수록 개인연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며(김예슬, 2017)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위험자산의 보유액이 증가한다는(김헌수와 김경아, 2014) 선행연구가 위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은퇴준비행동 측면에서 금융자산, 공적연금을 보유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 보유 측면에서 정다은과 차경옥(2017)은 부채보유가구가 비보유가구에 비해 총자산과 부동산자산이 유의하게 많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퇴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퇴준비에 있어 부채의 역할에 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공적연금 보유와 자가주택 보유가 은퇴자금충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연금과 자가주택을 은퇴가구의 대표적인 은퇴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자가주택 보유 차원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통제위치가 은퇴준비행동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은퇴자금충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부채 보유자 중 내적 통제위치가 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통제위치 성향을 고려하여 가구의 은퇴계획에 부합하는 재무행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준비행동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자금이 충분치 않은 가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은퇴준비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무행동을 숙고하고 은퇴계획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여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준비는 장기간의 재무행동이 요구되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선우 외, 2018). 또한 기업 측면, 특히 경제적 은퇴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권 측면에서 통제위치를 고려한 고객세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신뢰성 높은 재무교육과 재무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적 통제위치자의 경우, 전문가에 대해 의존적이며 은퇴자금을 충분히 모으려는 목표달성의 의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제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적 통제위치자의 경우, 은퇴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있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위험성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에 있어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Pinger et al, 2018; Salamanca et al, 2013; Strickland, 2017)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내적 통제위치자에 대한 재무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위치는 은퇴자금충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은퇴가구의 재무적 특성과도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통제위치는 은퇴준비행동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충분한 은퇴자금을 모으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적 통제위치자는 은퇴준비행동을 원활히 수행할 가능성은 높으나 은퇴준비행동이 은퇴자금충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은퇴준비행동에 있어 자기과신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통제위치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통제위치에 따라 은퇴준비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변수로 통제위치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은퇴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통제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함으로써 재무교육과 상담에 있어 통제위치의 활용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은퇴가구의 은퇴자산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 및 측정변수 정의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은퇴준비에 대한 통제위치의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은퇴준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통제위치, 경제적 은퇴준비, 은퇴준비 행동, 은퇴자금충분성,
한국노동패널조사

학 번 : 2018-2166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	4
1. 은퇴준비의 개념과 현황	4
2. 은퇴준비행동의 개념과 관련 연구	6
3. 은퇴자금충분성의 개념과 관련 연구	11
제 2 절 통제위치	15
1. 통제위치의 개념과 관련 연구	15
2. 통제위치와 가계재무관련 연구	18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0
제 1 절 연구문제	20
제 2 절 연구방법	21
1. 연구모형	21
2. 분석자료	22
3. 조사대상	22
4. 변수의 정의	24
5. 분석방법	36
제 3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37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2. 연구대상자의 고용 관련 특성	38
3. 연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39

제 4 장 연구결과	41
제 1 절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및	
가구 특성에 따른 통제위치의 차이 분석	41
1.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수준	41
2. 은퇴가구 특성과 통제위치의 관계 분석	43
제 2 절 은퇴가구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 분석	46
1. 은퇴가구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 수준	46
2. 은퇴가구의 특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 분석	48
3. 은퇴가구의 특성과 은퇴자금충분성의 관계 분석	50
제 3 절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재무적 특성의 영향력 분석	52
1. 은퇴준비행동에 재무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	52
2. 은퇴자금충분성에 재무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	54
제 4 절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 및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분석	56
1.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56
2. 재무적 특성이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6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4
제 1 절 결론	64
제 2 절 함의 및 제언	67
참고문헌	71
Abstract	84

표 목 차

<표 2-1>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유사개념과 영향요인 고찰 ... 9	9
<표 2-2>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유사개념과 영향요인 고찰 14	14
<표 3-1> 2015년 만 50세~74 세 연령별 가구주 현황 23	23
<표 3-2> 책임 주체에 따른 은퇴준비방법 25	25
<표 3-3> 은퇴자금의 세부 구성 27	27
<표 3-4> 총 연금액 및 은퇴필요자금 적용 parameter 29	29
<표 3-5>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산식 30	30
<표 3-6> 2015년 기준 보훈연금과 유족연금액 30	30
<표 3-7> 재무적 변수의 세부 항목 33	33
<표 3-8> 노동패널과 SOEP 통제위치 문항 비교 35	35
<표 3-9>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술통계 결과 · 37	37
<표 3-10> 연구대상자의 고용 관련 특성 기술통계 결과 38	38
<표 3-11> 연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기술통계 결과 40	40
<표 4-1>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수준 42	42
<표 4-2> 통제위치 수준에 따른 은퇴가구 가구주 빈도 분석 42	42
<표 4-3> 은퇴가구 특성에 따른 통제위치의 차이 분석 결과 45	45
<표 4-4> 은퇴가구의 은퇴준비행동 및 은퇴자금충분성 현황 46	46
<표 4-5>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의 관계 분석 결과 47	47
<표 4-6> 은퇴가구 특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 분석 결과 · 49	49
<표 4-7> 은퇴가구 특성과 은퇴자금충분성의 관계 분석 결과 51	51
<표 4-8> 재무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3	53
<표 4-9> 재무적 특성에 따른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5	55
<표 4-10>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검정을 위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8	58
<표 4-11>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검정을 위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62	62

그림 목차

[그림 2-1] 노인인구(만 65세 이상)의 경제적 만족도 조사결과	6
[그림 3-1] 연구모형	21
[그림 4-1] 부채 보유 여부와 은퇴준비행동 간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60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베이비부머 세대로 일컬어지는 1955년~1963년생 인구가 은퇴를 준비하거나 주된 일자리를 떠나 은퇴자로서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UN(2019)은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2050년까지 23%포인트 더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도 노후생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Rowe & Kahn(1987)이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을 소개하며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활발한 사회 참여와 사회적 유능감 같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과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Rowe & Kahn, 1997 ; 김미혜와 신경림, 2005 ; 손종철, 2010 ; 박종욱, 2018).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은퇴준비행동, 은퇴준비지수, 은퇴 이후 필요자산의 적정성과 충분성 등(안종범과 전승훈, 2005 ; 박창제, 2008 ; 최현자, 2009 ; 여윤경, 2011) 경제적 측면에서의 은퇴준비 연구가 다수 수행돼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한 독립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이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최근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구조적 속성에만 치우쳐져 있어 개인 차원에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은퇴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내재된 동기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준비에 대해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Hershey & Mowen, 2000 ; 한경혜 외, 2012 ; 이현숙과 주소현, 2014). 은퇴준비에 대하여 한경혜 외(2012)는 통제감이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Hershey & Mowen(2000)은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이 재무적 준비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심리적 변인 또한 은퇴준비 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 중 통제위치(locus of control)에 주목한다. Rotter(1966)에 의해 소개된 통제위치는 인간이 갖는 일반화된 기대이다. 즉,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자기 자신에게서 발현하는지, 혹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기인하여 자신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여기는지에 따라 내적 통제위치자와 외적 통제위치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적 통제위치자는 어려운 목표에 대해 자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지만 외적 통제위치자는 목표달성이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Holenbeck et al. 1989) 내적 통제위치자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하지만 외적 통제위치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므로 상황개선에 대한 노력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안영과 강영신, 2003)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통제위치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은퇴준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심리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은퇴준비는 강제가입의 성격을 갖는 공적연금과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금융, 비금융자산과 부채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해 통제위치가 구별되게 발현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제위치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은퇴준비가 함께 다루어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박주영과 조혜진(2012)이 재무지식과 은퇴준비행동 간 통제위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 1건에 그치고 있어 경제적 측면의 은퇴준비 차원에서 통제위치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재무적 변수와 더불어, 통제위치가 사적인 은퇴준비와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재무적 변수의 영향이 개인의 통제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겠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를 통해 은퇴가구주의 재무적 특성이 은퇴가구주의 은퇴준비 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통제위치에 따라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여 통제위치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은퇴준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우리나라 중·고령 가구주의 통제위치와 은퇴준비행동, 은퇴자금충분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통제위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의사결정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 중·고령 은퇴가계의 통제위치성향을 파악함으로써 비단 은퇴준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무교육 및 재무설계 등에 있어 통제위치를 고려한 재무설계, 맞춤형 재무 교육프로그램 제작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

1. 은퇴준비의 개념과 현황

은퇴는 생활주기단계로 보았을 때 중년에서 노년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노년기의 윤택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은퇴자가 겪게 될 경제적 수입, 사회적 지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조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또한 은퇴의 개념은 사회 정책, 노동 시장, 경제 체계, 가족역동, 개인 선호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홍성희와 곽인숙, 2007 ; Hardy, 2011). 즉 은퇴준비는 은퇴 이후 겪게 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물론 정책적, 사회적 측면에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은퇴준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현재 은퇴준비는 노후설계, 노후대비, 노후준비, 은퇴계획, 퇴직준비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은퇴준비의 범위를 좁게는 경제적 측면에서 넓게는 건강, 주거, 여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홍성희와 곽인숙, 2007; 여윤경 외, 2007; 송현주와 임란, 2017; 이윤경, 2019). 나혜림과 최현자(2013)은 다양한 은퇴준비의 영역 중 경제적 은퇴준비가 노후에 겪게 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밝혔으며 양세정과 이성림(2009)은 지속되는 인구고령화, 가계의 개인주의적 성향,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희망노후생활 등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노후대비가 필요하다 하였다. 이처럼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주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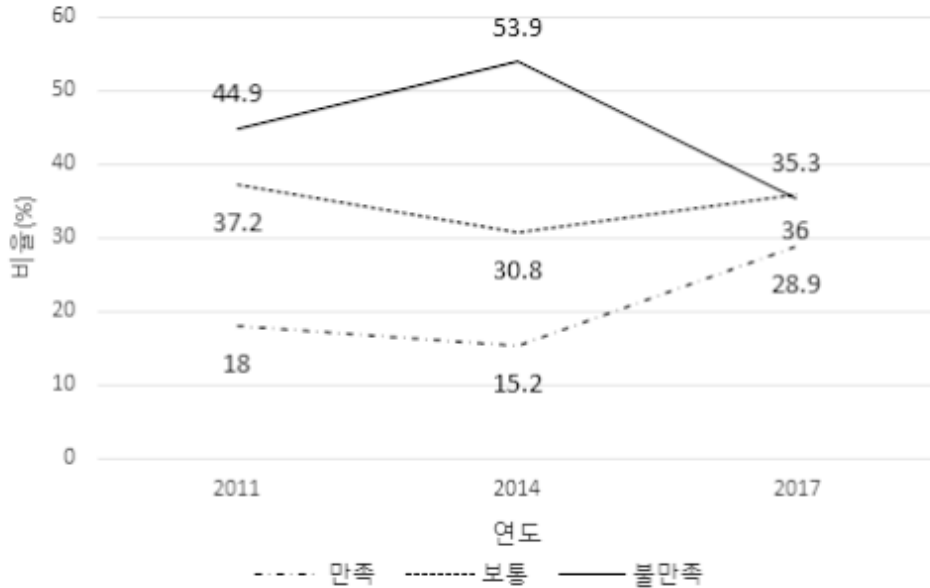
경제적 측면에서 은퇴준비는 주로 Ando와 Modigliani(1963)에 의해 고안된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을 바탕으로 한다. 즉 생애주기에 걸쳐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소비함으로써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한다고 보았다. 이는 곧 가계가 예상하는 총소득의 현재가치를 생애주기 간에 균등하게 소비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에는 부채를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고 장년기에 들어서며 이에 대한 부채를 청산하고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하며, 노년기에는 저축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재무행동은 위의 이론을 통해 설명가능하다(Lown, 2008 ; 이승신 외, 2008). 즉, 생애주기가설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은퇴 이후에도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은퇴준비행동이 필요함을 주지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준비 수준과 은퇴 이후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8)는 우리나라의 25세 이상 74세 미만 국민의 평균 재무실행점수가 2014년 53.6점에서 2018년 67.8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재무행동 실행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60대 이상 인구의 재무실행점수도 증가 추세이나 53.9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에 포함되는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해당 자산의 등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무실행점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재무준비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주지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참고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는 불만족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고 만족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적 만족도는 증가 추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재무실행능력 또한 개선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무행동 실행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은퇴준비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 노인인구(만 65세 이상)의 경제적 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1-2017)

주)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만족도 문항을 3점으로 재구성

2. 은퇴준비행동의 개념과 관련 연구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 내에서 정의되는 은퇴준비행동과 알아보고자 하는 영향요인이 각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이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각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은퇴준비행동과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고찰이 요구된다.

최혜지와 이영분(2005)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계층적 성격모델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은퇴를 대비한 재정적 준비행동과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재정적 준비행동을 은퇴 후 저축금액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재정적 지식만이 재정적 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가 저축행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음 살펴본 연구들은 저축뿐만이 아닌 연금, 보험, 부동산 등 더욱 넓은 의미에서 은퇴준비행동을 살펴보았다. 정지영과 양세정(2013)은 은퇴준비행동을 은퇴자산 보유여부와 자산보유액의 현재가치, 은퇴저축행동여부와 은퇴저축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은퇴자산 보유여부에는 은퇴에 대한 인식과 금융자산액이, 은퇴자산 보유액에는 예상은퇴생활비, 상속,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저축행동과 보유액에는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 가계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2013)는 공적연금 가입, 개인연금 가입, 저축 여부 등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임금근로자나 정규직일수록, 개인 및 가구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공·사적 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았으며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또한 공적연금 가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의 경우, 가구수준 변수 즉, 가구원 수, 총 자녀 수, 가구 총소득 등이 저축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은영(2011)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여부와 행동이 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려고 하였으며 은퇴준비 방식을 네 가지로 유형화(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부동산)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성별,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른 준비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박창제(2008)은 경제적 노후준비,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요인을 Andersen 모형에 대입하여 소인특성 요인, 가용자원 요인, 필요요인 중 어떠한 영향요인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성별, 교육수준, 혼인 여부, 거주지역 등의 요인

이 각각의 노후준비여부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정미와 엄기욱(2014)은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 중 하나 이상을 가입한 경우를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가계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부모의 지원, 자녀 수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살펴보았던 위의 연구들과 구별되게 정운영과 백은영(2009), 나혜림과 최현자(2013)는 저축금액과 함께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은퇴준비행동을 객관적, 주관적 시각에서 폭넓게 살펴보았다. 나혜림과 최현자(2013)는 은퇴준비행동을 은퇴준비를 목적으로 한 저축 및 투자행동으로 정의하고 월 평균 소득 중 은퇴대비 금액으로 측정한 객관적 은퇴준비행동과 7단계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은퇴준비상태로 측정한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정운영과 백은영(2009)는 은퇴준비행동을 은퇴준비를 위한 월 적립액과 은퇴준비에 대한 주관적 충분성을 은퇴준비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은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롯하여 월 소득, 주택소유형태 인식 등이 있었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을 정의하는 데 있어 주관적 혹은 객관적 기준을 이용하거나 두 관점 모두를 채택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으며 행동으로 형성된 자산까지도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향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함께 월 소득, 금융자산 보유, 거주 주택 보유와 같은 경제적 변수를 위주로 살펴본 연구가 다수였으며 그밖에 종사상 지위 등의 고용 관련 변인, 재정적 지식 등의 재무행동 관련 배경지식, 심리적 변인인 자기통제감 등이 경제적 은퇴준비행동 연구에 활용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1]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유사개념과 영향요인 고찰

연구자	유사개념	유사개념 측정	유의 영향요인	
			(+)	(-)
최혜지, 이영분(2005)	재정적 준비행동	저축금액 계산 여부 및 은퇴를 위한 정기적 저축 여부	(+)	재정적 지식
			(-)	
박장제(2008)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선택, 보수적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	장래소득 기대(부수직), 남성, 주택소유, 도시거주(경제적, 부수직), 취업(경제적, 부수직), 교육수준, 혼인, 현재소득인식, 전반적 생활여건 (경제적, 사회적, 부수직)
			(-)	남성(사회적), 연명(사회적, 부수직), 취업(사회적)
정운영, 백은영(2009)	은퇴준비행동	은퇴대비 적립액, 은퇴준비충분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월소득, 은퇴인식, 은퇴 태도(적립액, 평가)
			(-)	
백은영(2011)	은퇴준비유형	베이비부머가 택한 주된 은퇴준비방법 (국민연금(기준),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부동산)	(+)	소비생활만족(개인), 고졸, 대출, 소득(개인, 부동산), 교육비부담/부담없음(개인), 주택소유(부동산) 가구주(예·적금, 부동산)
			(-)	장래소득 증가/감소 예상(개인, 예·적금) 남성, 소비생활불만(개인, 예·적금, 부동산)
박주영, 조혜진(2012)	은퇴준비행동	은퇴준비 관련 재무영역(은퇴설계, 미래설계, 저축, 투자 및 보험가입)에 대한 자기평가.	(+)	순자산, 재무지식
			(-)	

주)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 결과는 직접효과만 기재

[표 2-1]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유사개념과 영향요인 고찰 (계속)

연구자	유사개념	유사개념 측정	유의 영향요인
정지영, 양세정(2013)	경제적 은퇴준비행동	은퇴자산 보유여부, 은퇴자산의 현재 가치, 은퇴를 위한 저축 여부	(+) 은퇴관심, 가계수입(저축), 자녀교육비용, 금융자산액(자산) 은퇴인식(자산, 저축),
			(-) 부모 경제적 자립도, 자녀결혼비용(저축), 평균소비성향(자산)
김경아(2013)	공·사적 은퇴준비	공·사적연금 가입 여부 및 저축여부	(+) 개인총소득(공적), 총 자녀수, 가구총부채(사적), 개인총소득(저축), 임금(공적, 사적), 가구총자산, 가구원수(공적, 저축) 가구총소득, 금융자산보유(공적, 사적, 저축),
			(-) 연령(공적), 가구원수, 자가주택(사적), 가구총부채(저축) 남성(공적, 사적), 총자녀수(공적, 저축),
나혜림, 최현자(2013)	은퇴준비행동	월평균 소득 중 은퇴를 대비한 금액 비중으로 측정된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은퇴준비인식에 따른 객관적 은퇴 준비행동	(+) 객관적 금융이해력(객관적), 주관적 금융이해력(주관적), 자기통제, 은퇴목표명확성(객관적, 주관적)
			(-)
김정미, 엄기욱(2014)	경제적 노후준비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 중 하나 이상 가입	(+) 여성, 소득, 주택소유, 주관적 경제상태, 교육비 지출
			(-) 자녀수

주) 경로분식 및 구조방정식 결과는 직접효과만 기재

3. 은퇴자금충분성의 개념과 관련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7차 조사 결과(국민연금연구원, 2018)에 따르면 스스로 노후기로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후 생활비를 공,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아직 노후진입상태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에서도 약 37%만이 노후생활비를 준비했고 이 중에서 53.9%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곧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상당수의 중·고령 가구가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하여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계의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Li et al(1996)은 가구의 축적된 금융자산(순자산, 연금, 사회보험의 현재가치)와 생애주기 동안 소요될 필요금융자원을 활용하여 은퇴자금충분성을 도출하고 프로빗 분석을 통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득, 자산(자가 소유, 주거 외 부동산, 채권 등 보유)이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부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윤경(1999)은 미국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를 활용하여 가계의 은퇴자산의 충분성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산과 연금이 현재의 소비를 대신하는 정도를 통해 은퇴자산의 충분성을 도출하였으며 독신남성일수록, 은퇴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자산을 충분히 모으게 될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Li et al(1996)과 여윤경(1999)은 은퇴자금충분성을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살펴 보았다면 여윤경 외(2007)는 우리나라 중산층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시각에서의 은퇴자금 충분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관적 은퇴자금충분성을 현재 축적한 모든 자산과 연금소득이 은퇴 이후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가구주연령, 은퇴예상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총소득, 부동산자산총액이 많을수록 은퇴자금이 충분하다는 주관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객관적, 주관적 은퇴자금충분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 또한 수행되었는데 이지영과 최현자(2009)는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더

불어 주관적 인지수준을 알아보고 두 요소의 일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객관적 충분성은 은퇴 후 총 소요자금과 은퇴자산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관적 인지 수준은 충분과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분형 변수를 활용하였다. 객관적 충분성의 영향요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건강만족도, 자가보유 여부, 연금수급여부, 보험 가입 여부였으며 주관적 인지수준에 대해서는 학력, 은퇴대비여부, 보험가입 여부, 가구원 수가 추가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고 박주영과 유소이(2018)는 경제수명을 활용하여 기대여명까지의 은퇴자금의 충분여부를 도출하고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은퇴준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은퇴자금충분성과 유의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왔으며 연구자에 따라 객관적, 주관적 시각에서 혹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함께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였다.

이 밖에도 은퇴자금충분성 연구는 이와 관련된 지표 개발 및 활용 연구로도 이어진다. 최현자 외(2009)는 은퇴준비도 산출에 있어 은퇴소득 대체율과 은퇴자금충분도를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는 은퇴 이후 소득이 은퇴직전 소득의 41%를 대체하며 은퇴자금 충분도는 60%로 전체적으로 은퇴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며 연령, 직업, 소득 분위에 따라 은퇴소득 대체율과 은퇴자금충분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수명이라는 개념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수명은 총자산을 연간지출액 혹은 은퇴이후 희망 생활비로 나눈 값에 현재 연령을 더한 것으로 현재시점부터 몇 세까지 경제적으로 충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최현자 외(2012)는 조사대상자의 은퇴 이후 희망 적정생활비를 활용하여 은퇴 이후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필요자금을 추정하였으며 은퇴자산을 금융자산, 연금, 거주주택 이외 실물자산, 거주주택 등을 활용하여 각 계층의 자산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경우, 생활자금을 언제까지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수명을 도출하였다. 박주영과 유소이(2018)는 경제수명을 바탕으로 평가한 은퇴자금충분성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일치형,

비관적 불일치형, 낙관적 불일치형, 바람직하지 못한 불일치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가구를 구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에 언급한 경제수명, 은퇴소득 대체율과는 역으로 은퇴자산 부족확률은 연간 인출금액을 설정하고 은퇴기간 동안의 적정 인출비율을 제시한다. 김혜경과 여윤경(2011)은 은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퇴자산의 부족확률이 높아지며 투자리스크 변화보다 인출금액의 증가가 은퇴자산 부족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포트폴리오 조정보다는 인출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은퇴자금충분성을 비롯하여 은퇴를 대비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은퇴자금충분성 이외에도 경제수명, 은퇴소득 대체율, 자산부족확률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해 연구되고 있으며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거나 은퇴 기간 간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략 제시 등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은퇴자금충분성과 유사개념들이 각각의 연구에서 조금씩 수정되어 다루어지고 있기에 관련 연구를 고찰하는 것은 은퇴준비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특히 은퇴준비행동의 경우, 행동과 자산축적이 혼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은퇴준비행동에 초점을 맞춘 변수가 필요할 것이며 은퇴자금충분성의 경우,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이 유발한 결과물이므로 충분함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마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2-2]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유사개념과 영향요인 고찰

연구자	유사개념	유사개념 측정	유의 영향요인
Li et al(1996)	Financial Adequacy for Retirement	축적된 자금과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의 비교	(+) 소득제곱, 은퇴준비 나이, 자가보유, 저축 보유, 거주 외 부동산 보유, 주식 보유, 연금보유, 백인
여운경(1999)	은퇴자산 충분성	재정적, 비재정적 자산 및 공, 사적연금의 은퇴시점의 현재가치와 현재의 은퇴소비수준 비교	(-) 소득, 부채, 서비스직 종사자
여운경, 정순희, 문숙재(2007)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	현재 축적한 모든 자산과 연금소득이 은퇴 이후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 독립남성, 은퇴연령 (-) 서비스직, 농·어·임업 종사자, 주택임차, 주택 불완전 소유, 가계지출>가계소득
이지영, 최현자(2009)	은퇴자금 충분성	객관적 은퇴자금 충분성(연간 소요자금과 추적한 자산의 비교) 및 은퇴자금의 주관적 평가	(+) 가구주연령, 은퇴예상연령, 월평균총소득, 부동산자산총액, 개인적 은퇴준비 부채보유 (-) 건강, 자가 보유(객관), 남성, 연령, 학력, 은퇴대비 여부, 보험가입, 직업만족도(주관) 연령, 자가 보유(객관, 주관)
박주영, 유소이(2018)	주관적, 객관적 은퇴준비 수준	주관적 평가 및 경제수명을 활용한 객관적 평가(경제수명이 기대수명을 초과한 경우 객관적 은퇴준비 충분으로 상정)	(+) 소득, 지출(주관), 실물자산(객관), 연령, 학력(주관, 객관) (-) 가구원수, 담보대출, 월세거주(주관), 지출(객관), 주관

제 2 절 통제위치

1. 통제위치의 개념과 관련 연구

개인은 여러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일반화된 기대 (generalized expectancy)가 있는데 이러한 기대는 일관성을 가지며 기대에 대한 내용이나 강도는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일종의 성격변인으로 볼 수 있다(권석만, 2017). 통제위치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화된 기대로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자신으로부터 발현된다고 보거나(내적 통제소재) 기회, 운명, 행운과 같은 자신을 뛰어넘는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외적 통제소재)과 같이 개인의 통제력에 대해 믿는 정도이다(Rotter, 1990, Maddux, 1995에서 재인용 ; 권석만, 2017).

Rotter의 통제위치는 그가 제시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출발한다. 사회학습이론의 전제는 개인의 행동은 개인이 기대하는 강화물로부터 비롯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대는 강화에 대한 가치와 동일하다고 보았다(Rotter, 1966; Lefcourt, 1976). 이러한 맥락에서 강화에 대한 태도 또한 내적 통제위치자와 외적 통제위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내적 통제위치자는 결과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발현한다고 믿으므로 인센티브에 의해 행동이 동기화될 확률이 높다고 보았으나 외적 통제위치자는 결과물을 결국 외부에서 비롯되는 행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센티브에 의한 동기 발생이 약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Bowles et al, 2001).

통제위치에 따른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내적 통제위치자는 어려운 목표를 접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높으나 외적 통제위치자는 목표달성이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Holenbeck et al, 1989). 또한 내적 통제위치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상을 얻는 등의 성과로 나타나며 외부 환경에 휩쓸려 자신의 결정을 바꾸는 경향이 적고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개

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저항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외적 통제위 치자는 타인의 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쉽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한 불쾌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을 뛰어넘는 존재에게 있다고 인식하며 전문가나 권위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Strickland, 2017).

이러한 통제위치는 개인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외적 통제위치자는 자신의 능력이 상황을 개선하기에 역부족하다 믿으므로 노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내적 통제위치자는 자기의 삶은 자기 통제 하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이다(노안영과 강영신, 2003).

또한, 통제위치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Cobb-clark & Schurer(2013)는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통제위치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이며 여타 일련의 일생 내의 이벤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통제위치를 주요변수로써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선택, 구직활동, 근무평가, 창업자 관련 연구 등 고용 및 노동 관련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Heywood et al(2017)은 독일 내에서도 서독과 동독 기업의 근무평가제도를 내적 통제위치 고용자와 외적 통제위치 고용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서독기업 내의 내적 통제위치 고용자는 근무평가제도를 자신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근무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대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동독 기업에서는 통제성향에 따라 근무평가제도를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이는 통일 이전의 강압적인 정권(coercive regime)이 들어선 동독 내에 내적 통제성향을 개인적인 성향으로 간주하고 일터와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발현하는 것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즉, 지리적 특성, 문화 등에 따라 같은 수준의 통제위치라도 다른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창업자의 스트레스 대응에 관한 연구 또한 수행되었는데 Anderson(19

77)은 내적 통제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덜 인지하며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집중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외적 통제자에 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다고 밝혔다. McGee & McGee(2016)는 실험연구를 통해 통제위치가 구직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내적 통제자의 경우 고임금의 직업을 목표로 하며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Schnitzlein & Stephani(2013)는 외적 통제위치를 통제하였을 때, 높은 내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일수록 고임금 직장을 얻을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고용, 노동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내적통제위치가 고용, 노동 관련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같은 수준의 통제위치라고 평가되어도 다른 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직자, 취업자, 창업자 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연구 이외에도 국내 소비자학계 내에서 통제위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홍은실(2012)은 여성소비자의 통제위치를 파악하고 내적 통제위치가 소비행동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연구결과, 내적 통제위치가 일수록 지출계획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며, 전반적 생활만족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통제위치가 경우,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과소비 확률이 높았다.

박기경(2016)은 기부소비자를 내적 통제그룹과 외적 통제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상황에서 기부 선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내적 통제자의 경우, 부정적 사건보다는 긍정적 사건을 경험할 경우 기부 선택과 기부 의도가 높았으나 외적 통제자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국내 소비자학계 내에서 다루어진 연구에서도 대체로 내적 통제위치가 긍정적인 행동, 인식과 관련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 통제위치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통제위치와 가계재무관련 연구

통제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제위치는 성격변인으로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자신으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지에 따라 다른 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장기간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재무행동 중 하나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과 그 결과인 은퇴자금충분성에도 통제위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써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위치와 재무행동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통제위치와 관련된 재무 관련 연구는 크게 자산축적행동과 자산선택 및 자산구성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먼저 자산축적행동 측면에서는 연구를 살펴보면 Brounen et al(2016)의 연구결과, 높은 수준의 내적통제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연기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위치가 미래의 저축 의지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의 금융계획 수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ritt et al (2013)은 미국 대학생들의 통제위치가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종속변수인 재무행동을 필수소비품목(음식, 의료, 거주비 등)의 구매연기, 청구서 지불의 어려움, 1년 후에 남아있을 잔고 등을 물었으며 외적 통제자일수록 부정적인 재무행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주영과 조혜진(2012)은 재무지식과 은퇴준비행동 간의 통제위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재무지식은 생활과 밀접한 재무지식 다섯 가지를 물었으며 은퇴준비행동은 저축, 투자, 은퇴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자기평가로 물어 재무지식과 은퇴준비행동 사이에서 통제위치가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내적통제집단이 외적 통제집단에 비하여 은퇴준비행동을 더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연기하는 경향을 가지고 은퇴준비행동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산선택 및 자산구성에 관한 연구로는 Kesavayuth(2018)은 호주 HILDA 패널을 통해 통제위치와 같은 비인지적 특성이 금융 위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조사자 중 61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의 경우,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내적 통제위치의 여성일수록 위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Salamanca et al(2013)이 네덜란드의 DHS패널을 활용하여 투자결정과 경제적 통제위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내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이 높은 위험성 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많다는 결과와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한다. Pinger et al(2018)은 실험연구를 통해 내적 통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며 과거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도박사의 오류를 범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Cobb-Clark et al(2016)은 재무행동이 아닌 실제 보유한 자산과 구조에 대하여 통제위치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통제위치에 따라 가계 자산의 양과 구조가 영향을 받으며 내적 통제위치는 외적 통제위치의 가구 대표자보다 금융자산은 적지만 연금, 부동산, 사업 소득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내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준비에 있어서도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확률이 높으며 일관적이지 않은 투자를 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재무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찰한 논문 중 Cobb-Clark et al(2016)의 연구만이 보유자산액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은퇴준비 관련 연구는 박주영과 조혜진(2012)의 연구가 은퇴준비행동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통제위치를 활용한 재무행동의 결과물에 대한 연구, 은퇴준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적,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같은 통제위치 수준이라도 행동 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은퇴 현실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은퇴가구 가구주의 재무적 특성이 은퇴 이후 인식한 자신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제위치에 따라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 1]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는 어떠한가?

- 1.1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수준은 어떠한가?
- 1.2 은퇴가구 특성에 따라 통제위치 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은퇴가구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은 어떠한가?

- 2.1 은퇴가구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 수준은 어떠한가?
- 2.2 은퇴가구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3 은퇴가구 특성에 따라 은퇴자금충분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은퇴가구의 재무적 특성은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3.1 은퇴가구의 재무적 특성은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3.2 은퇴가구의 재무적 특성은 은퇴자금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에 따라 재무적 변수가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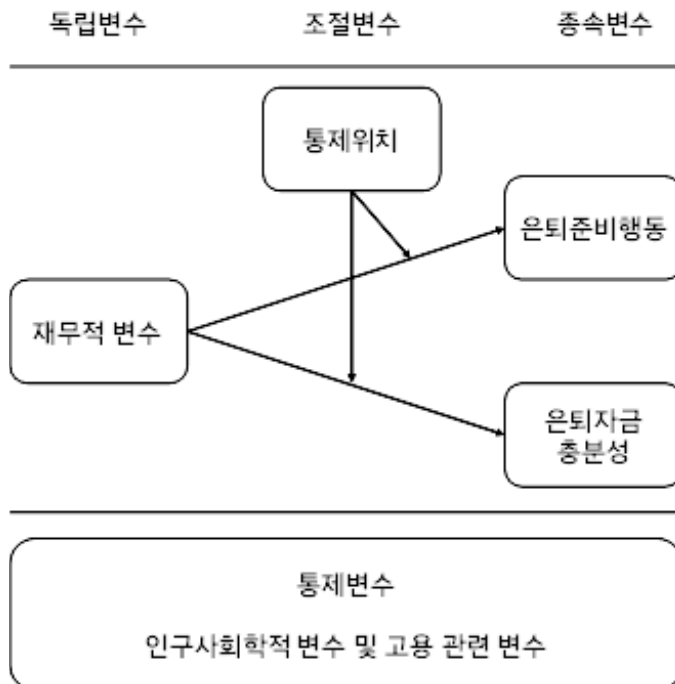
- 4.1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에 따라 재무적 변수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가?
- 4.2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에 따라 재무적 변수가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가?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종속변수는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이며 독립변수인 재무적 변수로는 금융자산 보유, 공적연금 보유, 자가주택 보유, 거주 외 부동산 보유, 부채 보유를 다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통제위치로 인해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위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고용 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년도 자료(2015)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18년도에 부가조사로 통제위치 문항을 포함한 삶의 인식 조사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과거 일자리 관련 은퇴자 발생, 종사상 지위, 재직기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과 은퇴에 대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소득과 지출, 자산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패널 조사 18차년도 자료가 통제위치와 재무적 변수가 은퇴준비과 은퇴자산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은퇴자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산충분성에 재무적 변수와 통제위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은퇴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김기홍과 양세정(2017)은 은퇴가구의 경제상태 및 은퇴생활 만족도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가구주 외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동거 가구원 혹은 교육비에 대한 추가지출이 필요한 가구원을 통제하였으며 이지영과 최현자(2009)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은퇴자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은퇴한 가구의 가구주를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김기홍과 양세정(2017)의 연구에서는 2인 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가구주로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 소득자와 주 재무의사결정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동패널 상에서 가구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는 가구주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부부가구의 가구주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장년층 부가조사 대상자의 나이가 만 50세에서 만 74세이므로 본 연구대상자의 나이 또한 이에 따라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로 157명이 선정되었으나 여성 가구주가 이 중 한 명에 불과하여 이를 제외한 은퇴부부가구의 남성가구주 156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본 연구대상 연령대의 남성 가구주 비중이 82~95%로 전체 가구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남성 가구주를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더라도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1] 2015년 만 50세~74세 연령별 가구주 현황

연령	전체 가구주 빈도 (명)	남성 가구주 빈도 (명)	여성 가구주 빈도 (명)	남성/전체 비율 (%)
50세~54세	255,481	208,998	46,483	82%
55세~59세	402,385	342,315	60,070	85%
60세~64세	461,793	413,097	48,696	89%
65세~69세	430,367	401,947	28,420	93%
70세~74세	376,311	358,124	18,187	95%

참고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4.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은퇴가구 가구주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 충분성이며 독립변수로는 재무적 변수로서 금융자산 보유 여부, 공적연금 보유 여부, 자가 주택 보유여부, 거주 이외 부동산 보유 여부가 활용되었다. 또한 통제위치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통제위치에 의하여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재무적 변수의 영향력이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엄밀한 분석을 위해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고용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에 활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가구주 연령, 학력, 거주지, 자녀 유무이고 고용 관련 변수로는 은퇴 전 임금, 종사상지위, 은퇴자발성, 재직 기간이다.

1) 종속변수

(1) 은퇴준비행동

본 연구는 통제위치가 은퇴준비에 대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통제위치에 따라 재무변수가 은퇴준비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제위치란 결과에 대한 통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말하며 통제위치에 따라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통제위치는 개인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나 강제되는 행동은 통제위치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은퇴준비행동 중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행해야 하는 공적인 은퇴준비행동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은퇴준비행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은퇴준비행동은 사적인 은퇴준비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은퇴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묻는 문항과 응답자가 평가하는 주된 경제적 은퇴준비 방법을 3가지 선택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은퇴준비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음 [표 3-2]

과 같이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특수연금),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채권, 기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강제적용 되고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며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은퇴 이후 소득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기업복지제도로서 기업 주체의 은퇴준비방법으로 볼 수 있다.(박광수 외 ; 2016, 원석조, 201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는 국민연금과 기타 공적연금, 퇴직금을 제외한 사적인 은퇴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며 본 종속변수는 사적인 은퇴준비를 했다고 판단하면 1,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0으로 측정하였다.

[표 3-2] 책임 주체에 따른 은퇴준비방법

본 연구의 은퇴준비행동 범위	책임 주체	은퇴준비방법
×	국가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기업	퇴직금(퇴직연금)
○	개인	개인연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참고 : 금융감독원 퇴직금연금종합안내

(2) 은퇴자금충분성

은퇴자금충분성이란 은퇴가구 가구주가 보유한 자금이 은퇴 이후 기대 여명까지 현재의 소비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충족 여부이다. 은퇴자금충분성은 은퇴자금을 은퇴필요자금으로 나누어 은퇴자금충분도를 구한다(식1). 이 값이 1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은퇴자금 충분 가구주로,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은퇴자금 불충분 가구주로 구분한다(식 2-1, 2-2).

$$(식1) \text{ 은퇴자금충분도} = \frac{\text{은퇴자금}}{\text{은퇴필요자금}}$$

$$(식2-1) \text{ 은퇴자금 충분 가구주} = \text{은퇴자금충분도} \geq 1$$

$$(식2-2) \text{ 은퇴자금 불충분 가구주} = \text{은퇴자금충분도} < 1$$

최현자 외(2017)는 경제적 은퇴준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측정 방식과 주관적 측정방식으로 구분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은퇴 이후 생활의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객관적 측정 방식을 활용하는 편을 권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한 객관적 은퇴준비 정도를 측정하고자 은퇴자금충분성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여운경 외(2007), 최현자 외(2009), 이지영과 최현자(2009), 최현자 외(2012), 이선우(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은퇴필요자금, 은퇴자금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자금충분성을 도출하였다. 은퇴자금과 은퇴자금충분성 변수를 구성한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① 은퇴자금

은퇴자금은 총 금융자산액, 자가주택 시가, 거주주택 외 부동산 시가, 전·월세 임차보증금, 총 연금액을 포함하며 이를 모두 더한 값에서 총 부채액을 제하였다(식3). 은퇴자금의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표 3-3]과 같다. 금융자산은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보장성 보험·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표 3-3] 은퇴자금의 세부 구성

구분	항목
금융자산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보장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기타
연금 (사회보험)	국민연금(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자가 주택 시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주 주택 외 부동산시가	
부채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임대 보증금, 부어야할 계, 기타

자가주택 시가의 경우, 은퇴자금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노후소득보장 기여도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효과적인 노후 소득보장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은퇴자금 산출에 포함하기도 한다(변준석과 홍희정, 2017).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주 주택의 가치를 은퇴자금을 포함하기 위하여 자가주택 시가를 은퇴자금에 포함하였다. 전·월세 임차보증

금 또한 전·월세 거주자가 약정기간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으로 투입하였다. 거주 주택 외의 부동산 역시 은퇴자산으로써 활용 가능하므로 투입하였는데 이에 반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은퇴자금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현금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은퇴자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기대여명 동안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부동산 소득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임대보증금,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의 사회보험으로 한정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데이터의 제한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노동패널은 개인연금 수급액을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특수직역연금과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기입한 경우가 다수이고 수급 종료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총 퇴직연금액을 추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begin{aligned} \text{(식3) 은퇴자금} &= (\text{총금융자산} + \text{자가주택시가} + \text{거주주택 외 부동산시가} \\ &\quad + \text{전·월세임차보증금} + \text{총연금액}) - \text{총부채} \end{aligned}$$

연금의 경우 저량화 과정을 거쳤다. 연금을 제외한 자산은 저량이지만 연금은 사망 전까지 매달 지급되는 유량이다. 따라서 연금을 은퇴자금으로서 저량화 하기 위하여 사망 전까지 지급될 총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였다. 먼저 가구주와 배우자가 수급 중인 모든 연금의 연간 수급액을 개별적으로 구하고, 이를 기대여명까지 수급하였을 때의 총 연금 수급액을 구한 후, 이를 모든 연금에 대하여 총합하는 방식으로 수급할 연금의 가치를 저량화 하였다.

노동패널 상에서는 각 가구원이 수급 중인 사회보험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에 가구주와 배우자가 수급 중인 개별 연금의 총액을 (식4)에 따라 구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총 연금액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청(2015)의 생명표를 활용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을 기대여명으로 변환하여 사망시점을 정하고 실제 연금액 계산에서 기대여명이 긴 가구원과 기대여명이 짧은 가구원을 구분하여 사망 시까지의 총 연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실질이자율을 산식에 적용하였다.

$$(식4) \text{ 개별 연금액 총액} = AP \times \frac{1 - \frac{1}{(1+r_2)^{HS}}}{r_2} + AP \left(\frac{1 - \frac{1}{(1+r_2)^{HL}}}{r_2} - \frac{1 - \frac{1}{(1+r_2)^{HS}}}{r_2} \right)$$

AP = 연간 개별연금 수금액

r_2 = 실질이자율

HS = 부부가구 내 기대수명이 짧은 가구원

HL = 부부가구 내 기대수명이 긴 가구원

기대여명까지 수급하게 될 총연금액과 은퇴필요자산을 현재가치화 하기 위하여 5년간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통계청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조정하여 산정한 실질이자율을 parameter로 활용하였다.

[표 3-4] 총 연금액 및 은퇴필요자금 적용 parameter

Parameter	값	설정방법
명목이자율 (r)	1.525%	지난 5년 평균(2015~2019) 평균 한국은행 기준 금리
물가상승률 (i)	1.275%	지난 5년 평균(2015~2019) 평균 통계청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이자율 (r_2)	0.25%	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

모든 연금에 대한 총 연금 수급액을 구할 때는 유족연금의 가치도 포함하였는데, 각 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은 [표3-5]와 [표3-6]에 따라 각 연금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산식 및 보상금액에 의거 하여 추정하였다.

[표3-5]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산식

기대수명이 짧은 가구원(HS)	기대수명이 긴 가구원(HL)	HS 사망 시 HL 예상 수령 연금 산식
국민연금	국민연금	1) HS 연금의 (40~60%) ¹ 2)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 본인 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자 사망 시 HS의 퇴직연금의 60% + 본인 국민연금
		군인 연금 수급자 사망 시 HS의 퇴직연금의 70% + 본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사망 시 HS의 퇴직연금의 70% + 본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HS 연금의 (40~60%) ¹ + 본인연금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	HS 유족연금의 50% + 본인 연금

참고 : 국민연금 연금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 군인연금, 연금업무안내, 사학연금, 알림마당

¹특례노령연금 가입자 : 40%, 국민연금 가입자 : 50%, 미 수급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 : 60% 로 가정

[표3-6] 2015년 기준 보훈연금과 유족연금¹⁾액 (단위 : 천원)

상이자 대상	상이자 보상금	유족(배우자) 대상	유족 보상금
5급	918	1~5급 유족	804
6급 1항	837	6급 유족	294
6급 2항	771		
6급 3항	517		
7급	269	해당 없음	

참고 : 국가보훈처 예우보상

1) 보훈연금이 아닌 보훈보상금으로 정식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노동패널 상에서는 이를 보훈연금으로 명한다. 보훈보상금은 타 연금과 다르게 각 보상등급에 따라 유족연금액이 정해진다. 연구대상자의 보훈연금 수급액이 최소 17만원에서 92만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보훈보상금과 비교해 적은 액수이므로 해당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가정하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액이 책정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에 도달 시점부터 받게 되는 연금의 총액을 도출하여(식5) 이를 바탕으로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begin{aligned}
 \text{(식 5) 국민연금예상수령액} &= [2.4(A + 0.75B)\frac{P_1}{P} + 1.8(A + B)\frac{P_2}{P} \\
 &+ 1.5(A + B)\frac{P_3}{P} + 1.485(A + B)\frac{P_4}{P} \\
 &+ \dots\dots\dots 1.2(A + B)\frac{P_{23}}{P}]
 \end{aligned}$$

A : 연금수급전 3년 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본 연구에서는 2015년의 A 값인 2,044,756만원 사용)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은퇴직전 소득의 1/2로 가정)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P_1 : 1988년부터 1998년 사이의 가입 월 수

P_2 :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의 가입 월 수

$P_3 \sim P_{22}$: 2008년부터 2028년 까지의 각각의 가입월수

P_{23} : 2028년 이후의 가입 월 수

X : 상수. 2008년 이후 매년 0.015씩 감소한다고 가정

② 은퇴필요자금

은퇴필요자금을 추정하기 위해 은퇴가구의 연 생활비와 기대여명을 활용하였다.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해도 소비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는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 가설에 따라 은퇴 이전의 소비생활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은퇴필요자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은퇴 이후 근로 관련 지출, 가계생산을 대신하여 소비했던 재화와 서비스의 감소 등으로 설명하는 은퇴소비퍼즐에 근거해 은퇴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자금을 은퇴필요자금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소비퍼즐에 근거하여 은퇴 이후의 월평균생활비가 조정되었을 것으로 보아 조사 당시의 월평균생활비를 활용하여 은퇴필요자금을 추정하였다(Hurd, 2003).

이를 위해 총 연금액 산출에서와 같이 통계청(2015)의 생명표를 활용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을 기대여명으로 치환하고 기대여명 간의 은퇴필요자금을 추정하였다. 또한 가구원 중 기대여명이 짧은 가구원이 사망하고 난 후 남은 가구원을 위한 생활비 산출을 위해 부부가구의 생활비를 OECD 제곱근지수로 나누어 1인 가구의 생활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총합하여 은퇴필요자금으로 정의하였다. 실질이자율은 총연금액 추정 시 사용한 실질이자율과 동일하다.

$$\begin{aligned}
 \text{(식 6) 은퇴필요자금} &= L \times \frac{1 - \frac{1}{(1+r_2)^{HS}}}{r_2} \\
 &+ \frac{L}{\sqrt{2}} \left(\frac{1 - \frac{1}{(1+r_2)^{HL}}}{r_2} - \frac{1 - \frac{1}{(1+r_2)^{HS}}}{r_2} \right)
 \end{aligned}$$

L = 연 생활비

r_2 = 실질이자율

HS = 부부가구 내 기대수명이 짧은 가구원

HL = 부부가구 내 기대수명이 긴 가구원

2) 독립변수

(1) 재무적 변수

은퇴가구의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자산 보유 여부, 공적연금 보유 여부, 자가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이외 부동산 보유여부, 부채 보유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은퇴가구의 재무적 특성으로 자산 규모를 포함하는 것의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은퇴가구로서 은퇴준비행동을 마친 상태이고 자산에서 소비지출을 충당한다고 보았을 때, 은퇴기간이 길어 질수록 자산의 액수가 감소할 것이므로 현재 보유한 자산 규모는 데이터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퇴기간과 은퇴기간 동안의 소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규모 대신 자산보유 여부를 사용하였다. 재무적 변수 중 금융자산 보유, 공적연금 보유, 부채 보유 변수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은 [표 3-7]과 같다.

[표 3-7] 재무적 변수의 세부 항목

변수	항목
금융자산 보유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보장성 보험
공적연금 보유	국민연금(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자가주택 보유	
거주 외 부동산 보유	
부채 보유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임대 보증금, 부어야 할 계, 기타

3) 조절변수

(1) 통제위치

통제위치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18차 노동패널에 수록된 통제위치 문항을 활용하였다. 노동패널에 사용된 통제위치 문항은 DIW Berlin(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²⁾이 시행하는 Socio-Economic Panel(SOEP)조사의 통제위치 문항을 한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Schnitzlein & Stephani(2013)는 SOEP 통제위치 척도 중 내적 통제위치 문항 3개, 외적 통제위치 문항 4개 등 총 7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SOEP 통제위치 문항을 활용한 Specht et al(2013)은 10개의 문항 중 7개의 문항을 사용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노동패널 상에서 Schnitzlein & Stephani(2013)이 사용했던 통제위치 문항을 선정하여 내적 통제위치 문항 3개, 외적 통제위치 문항 4개로 이루어진 통제위치 척도를 구성하였다.

통제위치 척도 사용과 관련하여 내적 통제위치 척도만을 투입하거나(이규만 외, 2005, 정기백과 최석봉, 2019) 내적 통제위치와 외적 통제위치 문항을 각각 투입한 연구(Pinger et al, 2018) 등 연구자마다 척도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위치와 외적 통제위치는 하나의 척도 상에서 연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통제위치가 은퇴를 위한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선행연구에서도 Schnitzlein & Stephani(2013)의 척도를 하나의 통제위치 척도로서 적용하였으므로(Schafer, 2016) 본 연구에서도 통제위치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외적 통제위치 문항을 역코딩하여 7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위치는 높을수록 내적 통제위치를, 낮을수록 외적 통제위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2) 독일 라이프니츠 협회(Leibniz Association)에 소속된 경제 및 사회문제 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1925년에 설립되었다.

[표 3-8] 노동패널과 SOEP 통제위치 문항 비교

구분	노동패널	SOEP
내적 통제 위치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How my life goes depends on me.
	누구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	If a person is socially or politically active, he/she can have an effect on social conditions.
	누구나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One has to work hard in order to succeed.
외적 통제 위치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Compared to other people, I have not achieved what I deserved.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느낌이다.	I frequently have the experience that other people have a controlling influence over my life.
	내 인생의 기회는 무엇보다 내가 처한 사회적 여건에 좌우 된다.	The opportunities that I have in life are determined by the social conditions.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I have little control over the things that happen in my life.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변수가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과 통제위치의 조절효과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은퇴준비행동 및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특성을 통제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인식과 은퇴자금충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 관련 특성을 통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가구주의 나이, 학력, 거주지와 자녀 유무를 통제하였으며 고용 특성으로는 은퇴 전 임금³⁾, 종사상 지위, 재직기간, 은퇴자발성 여부를 통제하였다(안중범과 전승훈, 2006; 여운경 외, 2007; 박창제, 2008; 백은영, 2011; 김경아, 2013; 김정미와 엄기욱, 2014; 최은영, 2018).

5. 분석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기술 통계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교차분석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은퇴가구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통제위치 수준, 은퇴준비행동, 은퇴자금충분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은퇴시기가 모두 다르므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화폐가치 계산을 통해 은퇴 당시의 은퇴 전 소득을 2015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였으며 해당 변수의 정규성 문제에 대하여 제곱근을 취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4) 결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에 있어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5% 이상인 분석 결과에 대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제 3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3-9]과 같다. 50대 은퇴가구 가구주는 전체의 1.9%로 소수를 차지하였으며 60대와 70대가 각각 50%, 48.1%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가 전체의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에 대해서는 전체의 92.9%의 가구주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함께 사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본 기술통계 상에서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가구를 꾸려 사는 경우라 볼 수 있다. 거주지에 대해서 은퇴가구의 41.7%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살고 있었으며 시/군 거주자가 33.3%, 인천 외 광역시 거주자 25%로 그 뒤를 이었다.

[표 3-9]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술통계 결과

변수	구분	빈도 (명,가구)	백분율 (%)	평균 (SD)	중위값
가구주 연령	50대	3	1.9	68.78세 (4.031)	69.00세
	60대	78	50.0		
	70대	75	48.1		
가구주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2	20.5	-	-
	중학교 졸업	32	20.5		
	고등학교 졸업	54	34.6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38	24.4		
자녀유무	유	145	92.9	-	-
	무	11	7.1		
거주지	서울, 인천 및 수도권	85	41.7	-	-
	인천 외 광역시	39	25.0		
	시/군	52	33.3		
총계		156	100		

2. 연구대상자의 고용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고용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과거 일자리 임금, 종사상 지위, 재직기간, 은퇴 자발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10]와 같다. 은퇴가구 가구주의 평균 임금은 327만원이었으며 중위값은 255만원이었다. 종사상 지위에 대하여 상용직은 전체의 52.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주/자영업이 3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무급가족노동자는 12.2%를 차지하였다. 과거 일자리 재직기간에 대하여 평균 22.23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은퇴자가 전체의 67.3%로 과반수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표 3-10] 연구대상자의 고용 관련 특성 기술통계 결과

특성	구분	빈도 (명,가구)	백분율 (%)	평균 (SD)	중위값
과거 일자리 임금	100만원 미만	9	5.8	327.09 만원 (240.77)	255.00 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1	26.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8	24.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6	16.7		
	400만원 이상	42	26.9		
과거 일자리 종사상 지위	상용직	82	52.6	-	-
	고용주/자영업	55	35.3		
	임시/일용/무급가족노동	19	12.2		
과거 일자리 재직기간	10년 미만	22	14.1	22.23년 (11.56)	22.00년
	10년 이상 19년 이하	35	22.4		
	20년 이상 29년 이하	51	32.7		
	30년 이상	48	30.8		
은퇴 자발성	자발적 은퇴	105	67.3	-	-
	비자발적 은퇴	51	32.7		
총계		156	100		

3. 연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은퇴가구 가구주의 재무적 특성을 알아보기로 자산을 및 부채 보유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11]과 같다. 금융자산 보유가구는 전체의 72.4%이며 평균 7,157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주의 평균 보유 금융자산액은 9,981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보유가구는 전체의 85.3%로 매달 지급받는 공적연금에 대해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의 기대여명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금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을 때, 은퇴가구 가구전체가 수급하게 될 총 연금액의 평균은 20,478만원이었으며 공적연금 보유자를 대상으로 평균 보유액을 산출하였을 때 24,019만원으로 나타났다. 자가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하여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89.1%였으며 자가 주택의 평균 시가는 25,044만원이었다. 자가주택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 자가주택 시가를 산출한 결과 28,106만원으로 나타났다. 자가주택 외에 보유한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41%로 나타났고, 자가주택 외 부동산 가치의 평균액은 13,041만원이며 이를 거주 외 부동산 보유자에 한정하여 평균 시가를 산출한 결과 31,797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33.3%만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은 3,151만원이고 부채보유가구에 한하여 부채보유액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평균 9,453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연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기술통계 결과 (단위 : 만원)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평균 (SD)	중위값	보유자 대상	
						평균 (SD)	중위값
금융자산 보유	유	113	72.4	7,157.54 (17167.69)	2,000.00	9,981.20 (19512.34)	4,000.00
	무	43	27.6				
공적연금 보유	유	133	85.3	20,478.05 (26842.81)	7,334.75	24,019.36 (27574.98)	10,643.96
	무	23	14.7				
자가주택 보유	유	139	89.1	25,044.26 (24845.28)	18,000.00	28,107.23 (24629.56)	20,000.00
	무	17	10.9				
거주 외 부동산 보유	유	64	41.0	13,041.03 (26880.20)	.00	31,787.50 (34239.28)	15,200.00
	무	92	59.0				
부채 보유	유	52	33.3	3,151.28 (7069.02)	.00	9,453.85 (9545.75)	6,500.00
	무	104	66.7				
총계		156	100				

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재무변수와 통제위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산충분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제 1 절에서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와 은퇴가구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통제위치의 차이를 살펴본다. 제 2 절에서는 은퇴가구 가구주의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인식과 은퇴자금충분성의 수준을 살펴보고 은퇴가구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3 절에서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제 4 절에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및 가구 특성에 따른 통제위치의 차이 분석

1.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수준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수준은 [표 4-1]과 같다.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통제위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위치를 가지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적 통제위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문항을 활용하여 파악한 은퇴가구 가구주의 평균 통제위치는 4.39점이며 중위값은 4.29점으로 나타났다. 최소 3.29점부터 최대 6.29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은퇴가구 평균적인 통제위치는 보통(4점)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1]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수준

	평균	중위값	SD	최소값	최대값
통제위치	4.3874	4.2857	.60020	3.29	6.29

n=156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활용한 Schnitzlein & Stephani(2016)은 연속변수로 측정된 연구대상자의 통제위치 수준을 내적 통제위치 집단, 중간 수준의 통제위치 집단, 외적 통제위치 집단 등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내적 통제위치 집단은 5점 이상, 중간 수준 통제위치 집단은 4점 이상 5점 미만, 외적 통제위치 집단은 4점 미만으로 정의하여 연구에 투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은퇴가구 가구주의 통제위치 수준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Schnitzlein & Stephani(2016)의 연구를 내적 통제위치 집단, 중간 통제위치 집단, 외적 통제위치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은퇴가구 가구주 특성에 따른 통제위치의 차이는 [표 4-2]와 같다. 통제위치가 중간 통제위치 집단의 가구주는 180명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였으며 5점 이상의 가구주는 27명으로 전체의 17.3%로 가장 적었다. 외적 통제위치 집단은 전체의 25.6%인 40명이었다.

[표 4-2] 통제위치 수준에 따른 은퇴가구 가구주 빈도 분석

	빈도(명)	비율(%)
내적 통제위치 집단	27	17.3
중간 통제위치 집단	89	57.1
외적 통제위치 집단	40	25.6
	156	100

2. 은퇴가구 특성과 통제위치의 관계 분석

다음으로 은퇴가구주 특성에 따른 통제위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위치를 내적 통제위치 집단, 중간 통제위치 집단, 외적 통제위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제위치를 내적 통제위치 집단, 중간 통제위치 집단, 외적 통제위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거주지, 자녀 유무는 각 통제위치 집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력($\chi^2=20.420$, $p<0.01$)의 경우 각 통제위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내적 통제위치 집단의 경우, 고졸 이하 가구가 48.1%, 전문대졸 이상 가구가 37.0%였으며 외적 통제위치 집단의 학력은 초졸 이하 가구가 46.9%, 중졸 이하 가구가 34.4%로 내적 통제집단의 학력이 외적 통제집단의 학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고용 관련 특성으로는 은퇴 전 소득, 종사상 지위, 은퇴자발성, 재직기간을 살펴보았다. 은퇴 전 소득은 내적 통제위치 집단이 평균 398.44만원, 외적 통제위치 집단이 평균 288.52만원으로 내적 통제위치 집단이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내적 통제위치 집단의 상용직 종사 비율은 63%로 타 집단에 비해 높고 고용주/자영업 종사 비율이 22.2%로 타 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평균 재직기간 또한 내적 통제위치 집단이 23.59년으로 외적 통제위치 집단의 20.85년보다 상대적으로 길었으나 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은퇴자발성 또한 통제위치 수준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특성에 따른 각 통제위치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재무적 특성 중 금융자산 보유 여부가 각 통제위치 집단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통제위치 집단의 경우, 88.9%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간 통제위치 집단은 64.5%, 외적 통제위치 집단은 55.0%로 내적 통제위치 집단이 중간 통제위치 집단 및 외적 통제위치 집단보다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거주 외 부동산 보유 여부 역시 내적 통제위치 가구주의 55.6%가 보유한 것에 비하여 중간 통제위치 가구주의 42.7%, 외적 통제위치 가구주의 27.5%만이 거주 외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성을 바탕으로 각 통제위치 집단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내적 통제위치 집단의 학력은 중간 통제위치 집단, 외적 통제위치 집단에 비하여 고졸 이상 고학력자 비율이 높으며 금융자산 보유 비율 또한 중간 통제위치 집단, 외적 통제위치 집단과 비교하여 더 높았다.

[표 4-3] 은퇴가구 특성에 따른 통제위치의 차이 분석 결과

특성		항목 (%)	통제위치			x ² /F
			내적	중간	외적	
인구 · 사회 학적 특성	연령	평균(SD)	68.22 (3.95)	68.73 (3.73)	69.28 (4.03)	.564
	학력	초졸 이하(20.5)	3(11.1)	14(15.7)	15(46.9)	20.430 ^{..}
		중졸 이하(20.5)	1(3.7)	20(22.5)	11(34.4)	
		고졸 이하(34.6)	13(48.1)	34(38.2)	7(13.0)	
		전문대졸 이상(24.4)	10(37.0)	21(23.6)	7(18.4)	
	거주지	수도권(41.7)	11(40.7)	34(38.2)	20(50.0)	7.383
		광역시(25.0)	11(40.7)	22(24.7)	6(15.0)	
		시, 군(33.3)	5(18.5)	33(37.1)	14(35.0)	
	자녀 유무	유(92.9)	24(88.9)	85(82.7)	36(90.0)	2.497 [†]
		무(7.1)	3(11.1)	4(6.3)	4(10.0)	
고용 관련 특성	은퇴 전 소득	평균(SD)	398.44 (221.33)	322.79 (242.16)	288.52 (245.63)	1.729
	종사상 지위	상용직(52.6)	17(63.0)	44(49.4)	21(52.5)	2.663
		고용주/자영업(35.3)	6(22.2)	35(39.3)	14(35.0)	
		일용/임시/무급(12.2)	4(14.8)	10(11.2)	5(12.5)	
	은퇴 자발성	자발(67.3)	16(59.9)	63(70.8)	26(65.0)	1.381
		비자발(32.7)	11(40.7)	26(29.2)	14(35.0)	
	재직 기간	평균(SD)	23.59 (10.99)	22.57 (11.53)	20.85 (12.13)	.505
재무적 특성	금융자산	보유(72.4)	24(88.9)	62(64.5)	22(55.0)	10.112 ^{..}
		미보유(27.6)	3(11.1)	22(24.7)	18(45.0)	
	공적연금	보유(85.3)	24(88.9)	75(84.3)	34(85.0)	.354
		미보유(14.7)	3(11.1)	14(15.7)	6(15.0)	
	자카주택	보유(89.1)	24(88.9)	82(92.1)	33(82.5)	2.690 [†]
		미보유(10.9)	3(11.1)	7(7.9)	7(17.5)	
	거주 외 부동산	보유(41.0)	15(55.6)	38(42.7)	11(27.5)	5.483
		미보유(59.0)	12(44.4)	51(57.3)	29(72.5)	
	부채	보유(33.3)	7(25.9)	34(38.2)	11(27.5)	2.229
		미보유(66.7)	20(74.1)	55(61.8)	29(72.5)	

n=156, [·]p<.05, ^{..}p<.01, ^{...}p<.001, [†] fisher's exact test

제 2 절 은퇴가구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 분석

1. 은퇴가구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 수준

은퇴가구 가구주의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은퇴준비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77명으로 전체의 49.4%이며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은 79명으로 50.6%로 나타나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가구가 1.2%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퇴자금을 은퇴필요자금 이상으로 축적한 은퇴자금충분 가구는 111명으로 전체의 71.2%였으며 불충분 가구주는 45명으로 전체의 28.8%로 나타나 은퇴자금충분 가구가 은퇴자금불충분 가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은퇴가구의 은퇴준비행동 및 은퇴자금충분성 현황

		빈도(명)	비율(%)
은퇴준비 행동	은퇴준비 유	77	49.4
	은퇴준비 무	79	50.6
은퇴자금 충분성	은퇴자금 충분	111	71.2
	은퇴자금 불충분	45	28.8
총계		156	100

은퇴준비행동 여부에 따른 은퇴자금 충분 가구주의 비율은 [표4-5]와 같다. 은퇴자금 충분 가구주 중 은퇴준비행동을 한 집단은 56.8%이며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은 43.2%로 은퇴자금이 충분한 가구주 중 은퇴준비행동을 한 집단이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은퇴자금 불충분 가구주 중 은퇴준비행동을 한 가구주는 31.1%이고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가구주는 68.9%로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주 중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가구주가 은퇴준비행동을 한 가구와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4-5]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의 관계 분석 결과

		은퇴자금충분성		χ ²
		충분	불충분	
은퇴준비행동	은퇴준비 유	63(56.8)	14(31.1)	8.425**
	은퇴준비 무	48(43.2)	31(68.9)	
계		111(100)	45(100)	

n=156, *p<.05 , **p<.01 , ***p<.001

2. 은퇴가구의 특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 분석

은퇴가구 가구의 특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6]과 같다.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 관련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구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행동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재무적 특성 중 금융자산 보유($\chi^2=16.182$, $p<.001$), 공적연금 보유($\chi^2=8.233$, $p<.01$), 거주 외 부동산 보유($\chi^2=9.386$, $p<.01$), 부채 보유($\chi^2=12.32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금융자산 보유의 경우, 은퇴준비행동을 한 집단 중 87%가, 은퇴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 중 58.2%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적연금에 대하여 은퇴준비행동을 한 집단의 93.5%가,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의 77.2%가 공적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거주 외 부동산 보유 여부의 경우, 은퇴준비행동을 한 집단의 53.2%,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의 32.4%가 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은퇴준비행동을 한 집단 중 53.2%,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 중 32.4%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은퇴준비행동 집단이 은퇴준비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금융자산, 공적연금,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부채를 보유한 경우도 더 많았다.

[표 4-6] 은퇴가구 특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 분석 결과

특성	항목 (%0)	은퇴준비행동		χ ² /t	
		행동 유 (n=77)	행동 무 (n=79)		
인구 · 사회 학적 특성	연령	평균(SD)	68.57 (3.771)	68.99 (4.283)	- .643
	학력	초졸 이하(20.5)	9(11.7)	23(29.1)	7.318
		중졸 이하(20.5)	18(23.4)	14(17.7)	
		고졸 이하(34.6)	29(37.7)	25(31.6)	
		전문대졸 이상(24.4)	21(27.3)	17(21.5)	
	거주지	수도권(41.7)	31(40.3)	34(43.0)	1.446
		광역시(25.0)	17(22.1)	22(27.8)	
		시, 군(33.3)	29(37.7)	23(29.1)	
	자녀 유무	유(92.9)	71(92.2)	74(93.7)	.127
		무(7.1)	6(7.8)	5(6.3)	
고용 관련 특성	은퇴 전 임금	평균(SD)	363.94 (253.36)	291.18 (223.63)	1.903
	종사상 지위	상용직(52.6)	41(53.2)	41(51.9)	1.454
		고용주/자영업(35.3)	29(37.7)	26(32.9)	
		일용/임시/무급(12.2)	7(9.1)	12(15.2)	
	은퇴 자발성	자발(67.3)	53(68.8)	52(65.8)	.160
		비자발(32.7)	24(34.2)	27(34.2)	
	채직 기간	평균(SD)	23.83 (9.62)	20.80 (13.07)	1.669
재무적 특성	금융자산	보유(72.4)	67(87.0)	46(58.2)	16.182***
		미보유(27.6)	10(13.0)	33(41.8)	
	공적연금	보유(85.3)	72(93.5)	61(77.2)	8.233**
		미보유(14.7)	5(6.5)	18(22.8)	
	자카주택	보유(89.1)	71(92.2)	68(86.1)	1.510
		미보유(10.9)	6(7.8)	11(13.9)	
	거주 외 부동산	보유(41.0)	41(53.2)	23(32.4)	9.386**
		미보유(59.0)	36(46.8)	56(70.9)	
	부채	보유(33.3)	36(46.8)	16(20.3)	12.323***
		미보유(66.7)	41(53.2)	63(79.7)	

n=156, *p<.05 , **p<.01 , ***p<.001

3. 은퇴가구의 특성과 은퇴자금충분성의 관계 분석

은퇴가구의 특성에 따른 은퇴자금충분성의 차이를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4-7].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chi^2=11.953$, $p<.01$)과 거주지($\chi^2=10.721$, $p<.01$)가 은퇴자금충분 여부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자금 충분 집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0.5%, 전문대 졸업 이상이 27.0%를 차지하여 은퇴자금 충분 집단의 67.5%를 차지하였으나 은퇴자금 불충분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1.1%, 중학교 졸업이 31.1%로 은퇴자금불충분 집단의 62.2%를 차지하여 은퇴자금 충분 집단이 은퇴자금불충분 집단과 비교했을 때,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의 경우 은퇴자금 충분 집단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가 49.5%였으나 은퇴자금 불충분 집단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가 22.2%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고용 특성 중에는 종사상지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은퇴자금 충분 집단의 경우, 상용직 종사자가 집단 내에서 과반 이상인 60.4%를 차지하였으나 은퇴자금불충분 집단의 경우, 고용주/자영업 종사자가 집단 내에서 53.3%를 차지하였다.

재무적 특성 중에도 은퇴자금 충분 여부에 대해 금융자산 보유($\chi^2=9.026$, $p<.01$), 공적연금 보유($\chi^2=10.067$, $p<.01$), 거주주택 보유 여부($\chi^2=21.083$, $p<.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은퇴자금 충분 집단의 금융자산 보유 비율이 79.3%, 공적연금 보유비율이 94.6%. 거주주택 보유비율이 96.4%로 나타났으며 그에 비해 은퇴자금 불충분 집단은 금융자산 보유 비율이 55.6%, 공적연금 보유 비율이 71.1%, 거주주택 보유비율이 71.1%로 나타나 은퇴자금 충분 집단의 보유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은퇴자금충분 집단의 경우, 은퇴자금불충분 집단에 비하여 고학력자,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으며 상용직 종사자가 많고, 금융자산, 공적연금, 자가주택 보유 가구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4-7] 은퇴가구 특성과 은퇴자금충분성의 관계 분석 결과

특성	항목 (%)	은퇴자금충분성		χ^2/t	
		충분 (n=111)	불충분 (n=45)		
인구 · 사회 학적 특성	연령	평균(SD)	68.92 (3.417)	68.44 (5.281)	.557
	학력	초졸 이하(20.5)	18(16.2)	14(31.1)	11.953**
		중졸 이하(20.5)	18(16.2)	14(31.1)	
		고졸 이하(34.6)	45(40.5)	9(20.0)	
		전문대졸 이상(24.4)	30(27.0)	8(17.8)	
	거주지	수도권(41.7)	55(49.5)	10(22.2)	10.721**
		광역시(25.0)	26(23.4)	13(28.9)	
		시, 군(33.3)	30(27.0)	22(48.9)	
	자녀 유무	유(92.9)	101(91.0)	44(97.8)	2.250†
		무(7.1)	10(9.0)	1(2.2)	
고용 특성	은퇴 전 임금	평균(SD)	330.31 (223.18)	319.15 (269.85)	.261
	종사상 지위	상용직(52.6)	67(60.4)	15(33.3)	10.380**
		고용주/자영업(35.3)	31(27.9)	24(53.3)	
		일용/임시/무급(12.2)	13(11.7)	6(13.3)	
	은퇴 자발성	자발(67.3)	75(67.6)	30(66.7)	.012
		비자발(32.7)	36(32.4)	15(33.3)	
	재직 기간	평균(SD)	22.84 (11.73)	21.00 (11.15)	.899
재무적 특성	금융자산	보유(72.4)	88(79.3)	25(55.6)	9.026**
		미보유(27.6)	23(20.7)	20(44.4)	
	공적연금	보유(85.3)	101(94.6)	32(71.1)	10.067**
		미보유(14.7)	10(9.0)	13(28.9)	
	자카주택	보유(89.1)	107(96.4)	32(71.1)	21.083**†
		미보유(10.9)	4(3.6)	13(28.9)	
	거주 외 부동산	보유(41.0)	51(45.9)	13(28.9)	3.850
		미보유(59.0)	60(54.1)	32(71.1)	
	부채	보유(33.3)	42(37.8)	10(22.2)	3.514
		미보유(66.7)	69(62.2)	35(77.8)	

n=156, *p<.05, **p<.01, ***p<.001, † fisher's exact test

제 3 절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재무적 특성의 영향력 분석

1. 은퇴준비행동에 재무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재무적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4-8]과 같다. 회귀모델에 대한 χ^2 의 유의확률은 $p < .001$ 으로 유의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340으로 약 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가구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은퇴가구 가구주의 재무적 특성 중 금융자산 보유($\beta=1.676$, $p < .01$), 공적연금보유($\beta=1.331$, $p < .05$), 부채보유($\beta=1.108$, $p < .05$)가 은퇴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자산과 공적연금을 보유한 가구주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으며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역시 은퇴준비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하게 될 경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 특성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은퇴가구가 금융자산과 공적연금을 보유하는 것과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은퇴 이후 평가하는 은퇴준비행동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8] 재무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β	S.E	Wald	p	exp(B)
독립 변수	금융자산보유	1.676**	.505	11.027	.001	5.345
	공적연금보유	1.331*	.621	4.602	.032	3.786
	자가주택보유	.170	.669	.065	.799	1.186
	거주외부동산보유	.297	.439	.457	.499	1.346
	부채보유	1.108*	.457	5.882	.015	3.029
통제 변수	연령	.002	.051	.002	.966	1.002
	중졸	.886	.657	1.820	.177	2.425
	고졸	.846	.596	2.016	.156	2.331
	전문대졸 이상	.649	.694	.873	.350	1.913
	수도권	-.335	.494	.461	.497	.715
	광역시	-.779	.515	2.288	.130	.459
	자녀 유	-.347	.818	.180	.671	.707
	은퇴직전 임금	.015	.040	.145	.703	1.015
	상용직	-.131	.672	.038	.846	.878
	고용주/자영업	.589	.700	.707	.401	1.802
	자발적 은퇴	.026	.456	.003	.954	1.027
재직기간	.025	.017	2.037	.153	1.025	
상수	-4.184	3.975	1.108	.293	.015	
χ^2		45.962(p=.000)				
-2Log우도		170.275				
Negelkerke R ²		.340				
Hosmer-Lemeshow		9.296(.318)				
정확분류도		73.7				

n=156, *p<.05 , **p<.01 , ***p<.001

주) 범주형 변수의 참조범주 : 중졸, 고졸, 대졸 이상(0=초졸 이하), 수도권, 광역시 (0=시,군), 상용직, 고용주/자영업(0=임시,일용,무급), 자발적 은퇴(0=비자발적 은퇴)

2. 은퇴자금충분성에 재무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재무적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9]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의 χ^2 은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였으며 Nagelkerke R^2 는 0.528로 본 회귀모델이 약 52.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재무적 특성 중 유의한 변수는 공적연금 보유($\beta=1.425$, $p < .05$)와 자가주택 보유($\beta=4.595$, $p < .001$) 확인되었는데 특히 자가주택 보유의 경우 표준화 계수 값이 99.016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은퇴자금충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곧 은퇴가구 가구주가 공적연금 및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퇴필요자금을 충족할 만큼의 은퇴자금을 축적하였을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고용 변수 중·고등학교 졸업 더미($\beta=2.021$, $p < .05$)와 수도권 거주 더미($\beta=2.908$, $p < .001$)가 유의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적연금 보유 가구와 자가주택 보유 가구가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보다 은퇴자금을 충분히 모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가구주와 비교하였을 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가구주가, 시·군 거주 가구주와 비교하였을 때,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주가 은퇴자금을 충분히 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9] 재무적 특성에 따른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β	S.E	Wald	p	exp(B)
독립 변수	금융자산보유	.353	.621	.323	.570	1.424
	공적연금보유	1.425*	.696	4.197	.041	4.160
	자가주택보유	4.595***	1.062	18.740	.000	99.016
	거주외부동산보유	.742	.629	1.393	.238	2.100
	부채보유	.739	.706	1.095	.295	2.094
통제 변수	연령	.124	.071	3.010	.083	1.132
	중졸	.360	.777	.214	.643	1.433
	고졸	2.021*	.827	5.966	.015	7.546
	전문대졸 이상	1.306	.945	1.909	.167	3.691
	수도권	2.908***	.745	15.250	.000	18.316
	광역시	.618	.637	.942	.332	1.855
	자녀 유	-1.478	1.270	1.354	.244	.228
	은퇴직전 임금	-.047	.054	.778	.378	.954
	상용직	-.029	.948	.001	.976	.972
	고용주/자영업	-1.352	.961	1.979	.159	.259
	자발적 은퇴	-.388	.618	.394	.530	.679
재직기간	.020	.022	.784	.376	1.020	
상수		-13.041	5.627	5.371	.020	.000
χ^2		80.776(p=.000)				
-2Log우도		106.664				
Nagelkerke R ²		0.578				
Hosmer-Lemeshow		4.646(.795)				
정확분류도		86.5				

n=156, *p<.05 , **p<.01 , ***p<.001

주) 범주형 변수의 참조범주 : 중졸, 고졸, 대졸 이상(0=초졸 이하), 수도권, 광역시 (0=시,군), 상용직, 고용주/자영업(0=임시,일용,무급), 자발적 은퇴(0=비자발적 은퇴)

제 4 절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 및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분석

제 4 절에서는 앞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제위치가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재무적 변수의 영향력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조절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총 4단계로 진행하였으며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 순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김신아와 한윤선(2016)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분석에 있어서 주효과가 유의한 변수만으로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으며 각 상호작용항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각 상호작용항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기로 한다. 또한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은 평균 중심화 하였다.

1. 재무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재무적 변수 중 금융자산 보유, 공적연금 보유, 부채 보유와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통제위치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조절변수인 통제위치가 투입된 Step 3을 살펴보면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적절한 모형이며 통제위치가 투입되어 증가한 χ^2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통제위치가 은퇴준비행동을 설명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통제위치($\beta = .848, P < .05$)는 은퇴준비행동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Step 4에서는 유의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와 이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각각의 독립변수가 은퇴준비행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통제위치로 인해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금융자산 보유와 통제위치의 상호작용항($\beta=-1.849$, $p>.05$)을 투입한 결과는 Step4-1과 같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은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것에 대한 χ^2 의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보유와 통제위치의 상호작용항($\beta=-2.804$, $p>.090$)을 투입한 결과는 Step4-2와 같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을 때 χ^2 및 χ^2 의 변화량 모두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아 이 역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의 변화량이 유의한 이유로는 통제변수 중 광역시 거주 더미($\beta=-1.126$, $p<.05$)가 유의변수로 나타난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부채 보유와 통제위치의 상호작용항($\beta=1.972$, $p<.05$)을 투입한 결과는 Step 4-3이다. 회귀모형의 χ^2 과 χ^2 변화량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제위치가 부채보유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통제위치에 따라 내적 위치집단, 중간 통제위치 집단, 외적 통제위치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중간수준의 통제위치 집단과 외적 통제위치 집단보다 내적 통제위치 집단의 가구주가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은퇴준비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통제위치는 은퇴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부채보유 여부와 은퇴준비행동 여부 간에 조절효과 또한 가졌다. 즉, 내적 통제위치자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내적 통제위치자이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주가 외적 통제위치자와 비교하여 은퇴준비행동을 할 경향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4-10]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와 검증효과를 위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Step 1			Step 2			Step 3		
	β	p	exp(B)	β	p	exp(B)	β	p	exp(B)
독립변수	금융자산보유			1.676*	.001	5.345	1.519**	.003	4.570
	공적연금보유			1.331*	.032	3.786	1.375*	.033	3.955
	자가주택보유			.170	.799	1.186	.197	.776	1.218
	거주의부동산보유			.297	.499	1.346	.191	.676	1.210
조절변수	부채보유			1.108*	.015	3.029	1.204*	.011	3.333
	통제위치						.848*	.016	2.335
상호작용항	통제위치×금융자산								
	통제위치×공적연금								
	통제위치×부채								
	연령	-.024	.576	.976	.002	.966	1.002	.007	.893
통계변수	중출	1.023	.068	2.782	.886	.177	2.425	.937	.162
	고출	.893	.089	2.443	.846	.156	2.331	.586	.341
	대출 이상	.891	.144	2.437	.649	.350	1.913	.431	.547
	수도권	-.194	.635	.824	-.335	.497	.715	-.428	.398
	광역시	-.587	.196	.556	-.779	.130	.459	-.997	.062
	자녀 유	-.232	.731	.793	-.347	.671	.707	-.420	.614
	은퇴직전 임금	.028	.400	1.029	.015	.703	1.015	.016	.684
	상용직	.022	.970	1.023	-.131	.846	.878	.033	.962
	고용주/자영업	.299	.615	1.349	.589	.401	1.802	.669	.345
	자발적 은퇴	.208	.594	1.231	.026	.954	1.027	.022	.962
	재직기간	.018	.245	1.018	.025	.153	1.025	.025	.159
	상수	.212	.948	1.236	-.1465	.709	.231	-.1641	.687
	X^2	12.649(.395)			45.026(.000)			52.114(.000)	
	ΔX^2	12.649(.395)			32.377(.000)			6.153(.013)	
-2Log우도	203.558			170.275			164.122		
Nagelkerke R ²	.104			.340			.379		
Hosmer-Lemeshow	6.666(.571)			9.296(.318)			8.044(.429)		
정확분류도	60.9			73.7			74.4		

n=156, *p<.05, **p<.01, ***p<.001

주) 범주형 변수의 참조범주 : 금융자산, 연금, 자가주택, 거주의 부동산, 부채(0=미보유), 중출, 고출, 대출 이상(0=초출 이하), 수도권, 광역시(0=시,군), 상용직, 고용주/자영업(0=임시,일용,무급), 자발적 은퇴(0=비자발적 은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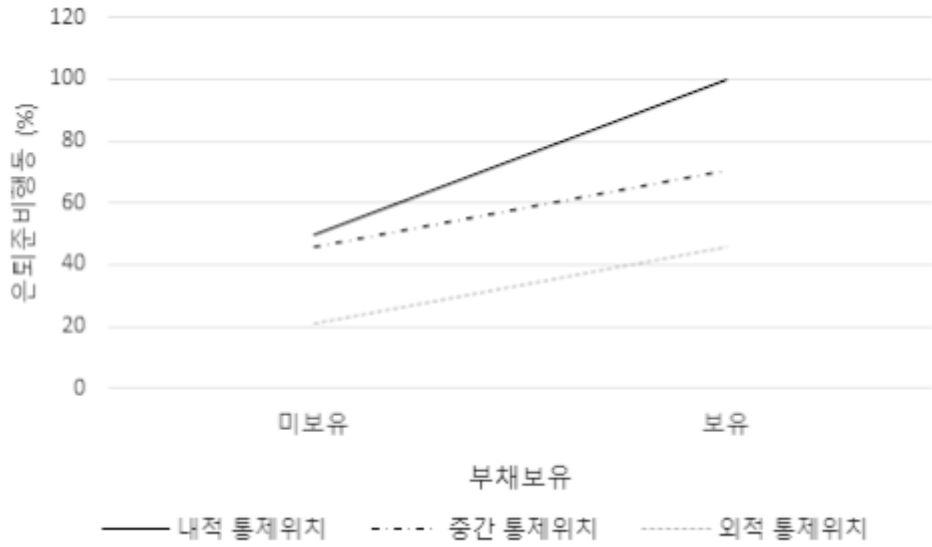
[표 4-10] 은퇴준비 행동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검정을 위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계속)

	Step 4-1			Step 4-2			Step 4-3			
	β	p	exp(B)	β	p	exp(B)	β	p	exp(B)	
독립변수	금융자산보유	1.552**	.004	4.723	1.566**	.003	4.785	1.640**	.002	5.155
	공적연금보유	1.478*	.026	4.386	2.045*	.033	7.727	1.606*	.020	4.983
	자가주택보유	.142	.849	1.152	.396	.583	1.487	.357	.624	1.429
	거주외부동산보유	.290	.530	1.337	.220	.634	1.247	.403	.402	1.497
조절변수	부채보유	1.124*	.019	3.078	1.125*	.020	3.081	1.076*	.032	2.933
	통제위치	1.044**	.006	2.841	1.529*	.010	4.615	.892*	.014	2.439
상호작용항	통제위치×금융자산	-1.849	.070	.157						
	통제위치×공적연금									
	통제위치×부채				-2.804	.090	.061			7.183
통제변수	연령	.004	.949	1.004	.000	.996	1.000	1.972*	.041	7.183
	성별	1.010	.145	2.744	1.002	.143	2.723	-.021	.706	.979
	고졸	.536	.389	1.708	.532	.389	1.702	.679	.325	1.973
	대졸 이상	.493	.494	1.637	.496	.487	1.642	.384	.542	1.468
	수도권	-.362	.482	.696	-.498	.333	.608	.300	.680	1.350
	광역시	-.939	.079	.391	-1.126*	.039	.324	-.465	.362	.628
	자녀 유	-.276	.741	.759	-.757	.403	.469	-.995	.066	.370
	은퇴직전 임금	.003	.949	1.003	.008	.851	1.008	-.675	.436	.509
	상용직	.107	.875	1.113	.007	.992	1.007	.017	.669	1.018
	고용주/자영업	.794	.268	2.213	.556	.434	1.743	-.208	.764	.812
	자발적 은퇴	-.012	.979	.988	.024	.959	1.025	.686	.333	1.986
	재직기간	.031	.084	1.032	.023	.206	1.023	-.082	.864	.922
	상수	-1.493	.724	.225	-.819	.847	.441	.026	.150	1.026
X^2	55.891(.000)			56.517(.000)			56.884(.000)			
ΔX^2	3.777(.052)			4.403(.036)			4.770(.029)			
-2Log 우도	160.346			159.719			159.352			
Nagelkerke R ²	.402			.405			.407			
Hosmer-Lemeshow	7.897(.444)			5.708(.680)			6.574(.583)			
정확분류도	74.4			73.1			73.1			

n=156, *p<.05, **p<.01, ***p<.001

주) 범주형 변수의 참조범주 : 금융자산, 연금, 자가주택, 거주외 부동산, 부채(0=미보유), 중졸, 고졸, 대졸 이상(0=초졸 이하), 수도권, 광역시(0=시,군), 상용직, 고용주/자영업(0=임시,일용,무급), 자발적 은퇴(0=비자발적 은퇴)

[그림 4-1] 부채 보유 여부와 은퇴준비행동 간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2. 재무적 특성이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분석

통제위치가 재무적 특성이 은퇴자금충분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재무적 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에 조절변수인 통제위치($\beta = -.247, p > 0.05$)를 투입한 식은 Step 3이다. 회귀모형의 χ^2 은 유의하나 χ^2 의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통제위치 또한 유의하지 않아 통제위치는 은퇴자금충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절변수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관계가 유의한 독립변수에 대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Step 4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Step 4-1은 공적연금 보유와 통제위치의 상호작용항($\beta = -.526, p > 0.05$)을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의 χ^2 은 유의하였으나 역시 χ^2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하지 않아 통제위치가 공적연금 보유에 대한 은퇴자금충분성에는 조절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가주택 보유여부와 통제위치의 상호작용항($\beta = -.995, p > 0.05$)을 투입한 결과는 Step 4-2이다. 역시 회귀모형의 χ^2 은 유의하였으나 χ^2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연금을 보유하거나 자가 주택을 보유할 경우, 은퇴자금충분성을 충족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통제위치는 은퇴준비행동과는 다르게 은퇴자금충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 책임의 은퇴자산 축적 행동의 결과라 볼 수 있는 공적연금 보유와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해 조절효과는 물론 없었으며 개인 책임의 자산축적행동의 결과인 자가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1]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검정을 위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Step 1			Step 2			Step 3		
	β	p	exp(B)	β	p	exp(B)	β	p	exp(B)
독립변수	금융자산보유			.353	.570	1.424	.410	.517	1.507
	공적연금보유			1.425*	.041	4.160	1.401*	.044	4.061
	자가주택보유			4.595***	.000	99.016	4.573***	.000	96.845
	거주의부동산보유			.742	.238	2.100	.748	.231	2.113
	부채보유			.739	.295	2.094	.730	.299	2.076
조절변수	통제위치								.606
상호작용항	통제위치*공적연금								
	통제위치*자가주택								
통제변수	연령	.056	.279	1.058	.124	.083	1.132	.089	1.128
	중졸	.026	.966	1.026	.360	.643	1.433	.660	1.409
	고졸	1.307*	.031	3.694	2.021*	.015	7.546	.013	8.216
	대졸 이상	.743	.294	2.101	1.306	.167	3.691	.160	3.806
	수도권	1.645**	.001	5.182	2.908***	.000	18.316	.000	18.578
	광역시	.478	.355	1.613	.618	.332	1.855	.294	1.984
	자녀 유	-1.828	.124	.161	-1.478	.244	.228	.255	.235
	은퇴자친소득	-.030	.455	.971	-.047	.378	.954	.401	.956
	상용직	.848	.213	2.335	-.029	.976	.972	-.065	.946
	고용주/자영업	-.520	.422	.594	-1.352	.159	.259	-1.397	.150
	자발적 은퇴	.265	.573	1.304	-.388	.530	.679	-.357	.700
	재직기간	.025	.169	1.026	.020	.376	1.020	.020	.380
	상수	-2.907	.458	.055	-7.731	.145	.000	-7.652	.147
	χ^2		37.116(.000)			80.776(.000)			81.041(.000)
	$\Delta\chi^2$		37.116(.000)			43.660(.000)			.265(.607)
-2Log우도		150.324			106.664			106.399	
Nagelkerke R ²		.303			.578			.579	
Hosmer-Lemeshow		8.793(.360)			4.646(.795)			7.464(.487)	
정확분류도		78.8			86.5			86.5	

n=156, *p<.05, **p<.01, ***p<.001

주) 범주형 변수의 참조범주 : 금융자산, 연금, 자가주택, 거주외 부동산, 부채(0=미보유), 중졸, 고졸, 대졸 이상(0=초졸 이하), 수도권, 광역시(0=시,군), 상용직, 고용주/자영업(0=임시,일용,무급), 자발적 은퇴(0=비자발적 은퇴)

[표 4-11]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한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검정을 위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계속)

	Step 4-1			Step 4-2		
	β	p	exp(B)	β	p	exp(B)
독립변수						
금융자산보유	.416	.512	1.516	.321	.619	1.379
공적연금보유	1.461*	.043	4.309	1.451*	.037	4.265
자가주택보유	4.633***	.000	102.872	4.683***	.000	108.078
거주외부동산보유	.761	.222	2.140	.833	.193	2.301
부채보유	.675	.345	1.965	.657	.350	1.930
통제위치	-1.146	.784	.884	-.090	.861	.914
통제위치*공적연금						
통제위치*자가주택	-.526	.679	.591			
상호작용항						
연령	.124	.084	1.132	-.995	.466	.370
중졸	.378	.632	1.459	.425	.591	1.529
고졸	2.083*	.014	8.025	2.198*	.011	9.009
대졸 이상	1.348	.157	3.849	1.434	.136	4.197
수도권	2.928***	.000	18.692	2.961***	.000	19.325
광역시	.655	.320	1.924	.760	.255	2.138
자녀 유	-1.538	.235	.215	-1.429	.259	.240
은퇴직전소득	-.047	.383	.954	-.050	.354	.951
상용직	-.062	.948	.940	.027	.978	1.027
고용주/자영업	-1.444	.139	.236	-1.340	.168	.262
자발적 은퇴	-.363	.559	.696	-.365	.557	.694
제작기간	.018	.430	1.018	.020	.365	1.021
상수	-7.736	.145	.000	-7.759	.154	.000
X^2	81.215(.000)			81.551(.000)		
ΔX^2	.174(.677)			.510(.475)		
-2Log우도	106.225			105.889		
Nagelkerke R ²	.580			.582		
Hosmer-Lemeshow	8.045(.429)			4.163(.842)		
정확분류도	85.9			85.3		

n=156, *p<.05, **p<.01, ***p<.001

주) 범주형 변수의 참조범주 : 금융자산, 연금, 자가주택, 거주외 부동산, 부채(0=미보유), 중졸, 고졸, 대졸 이상(0=초졸 이하), 수도권, 광역시(0=시,군), 상용직, 고용주/자영업(0=임시,일용,무급), 자발적 은퇴(0=비자발적 은퇴)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통제위치라는 심리적 특성이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한 연구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기존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해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개인 수준에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과에 대해 가지는 일반화된 기대의 위치를 의미하는 통제위치라는 심리적 특성을 통해 경제적 은퇴준비를 개인에게 내재된 성향의 차이에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의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은퇴준비행동과 은퇴자금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통제위치가 재무적 특성의 영향력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행동 가구는 전체의 49.4%이며 은퇴자금 충분 가구는 전체 중 71.2%로 확인되었다. 은퇴자금불충분 집단은 전체 중 29.8%로 은퇴가구의 경제적 복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특히 은퇴자금불충분 가구 중 은퇴준비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3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뿐만 아니라, 은퇴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은퇴준비를 돕는 정책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금융자산, 공적연금, 부채를 보유한 사람이 은퇴준비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금융자산 보유자일수록 사적연금, 저축 등의 은퇴준비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김경아, 2013)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이며 자신의 노후소득이 안정적인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위험자산 보유액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김현수와 김경아, 2014) 공적연금 가입자일수록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향이 높다는(김예슬, 2017) 선행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반면 부채 보유 또한 은퇴준비행동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경아(2013)은 부채액이 많을수록 저축 가능성은 낮으나 사적 연금 가입 가능성은 높다고 하였고 정다운, 차경욱(2017)는 노인가구 중 부채보유가구와 미보유가구를 비교하였을 때, 부채보유가구의 총자산, 부동산자산이 유의하게 많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부채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한 은퇴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적연금 보유와 자가주택 보유가 은퇴자금충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Li et al(1996), 이지영과 최현자(2009), 박주영과 유소이(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공적연금 보유와 자가주택 보유가 은퇴가구의 대표적인 은퇴자산으로써 경제적 복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통제위치는 은퇴준비행동에 대하여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Brounen et al(2016)은 내적 통제위치가일수록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소비행동을 연기한 것을 바탕으로 미래 준비를 위한 재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제위치와 은퇴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부채를 보유한 가구주 중 내적 통제위치가 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Brounen et al(2016)의 연구와 같이 미래 준비를 위하여 부채를 보유한 상황에서도 내적 통제위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적 은퇴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내적 통제위치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많으며(Salamanca et al, 2013,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을 갖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Hoorens & Buunk, 1993)에서 은퇴준비를 위해 부채 보

유를 감수하는 재무행동을 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보유와 통제위치 그리고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통제위치는 은퇴자금충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무적 특성에 따른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해 조절효과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즉 통제위치는 은퇴준비행동에 한하여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합의 및 제언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에서의 합의와 제언을 도출하였다.

소비자 측면에서 첫째, 금융자산 및 공적연금을 보유한 경우, 은퇴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준비행동 측면에서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연금을 보유할 경우, 사망 전까지 일정한 소득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적 은퇴준비에 대한 부담이 공적연금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자산 및 공적연금 보유가 공·사적 자산을 포함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자가주택 보유가 은퇴자금충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주택연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택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과 비교하였을 때 소득대체율이 높으며(변준석과 홍희정, 2017) 은퇴자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서도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 이후 경제적 복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제위치가 은퇴준비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치지만 은퇴자금충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부채 보유자 중 내적 통제위치가 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통제위치 성향을 고려하여 가구의 은퇴계획에 부합하는 재무행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준비행동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자금이 충분치 않은 가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은퇴준비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무행동을 숙고하고 은퇴계획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여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은퇴준비는 장기간의 재무행동이 요구되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선우 외, 2018).

기업, 특히 경제적 은퇴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권 측면에서

보아 금융소비자의 통제위치 성향을 활용하여 적절한 은퇴설계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Bradlow et al(2012)은 금융소비자 유치를 위한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개별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통적인 선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금액, 구입상품, 계약 기간과 같은 재무행위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세분화는 과거의 투자행동에 대한 특성이므로 미래 행동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세분화하는 ‘사이코그래픽 세분화(psychographic segmentation)’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 조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 가입 이전에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을 물어 금융소비자의 위험감수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감수하지 못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투자자의 개인 성향에 맞는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초개인화 기술을 통해 더 작은 단위로의 세그먼트화가 산업 전반에 걸쳐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김난도 외, 2019)에서 통제위치를 비롯한 심리적 성향이 투자권유에 반영된다면 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정부 측면에서 보아, 정부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개인 재무교육 및 재무설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내적 통제위치자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반대로 외적 통제위치자의 경우,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은퇴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종윤 외(2014)는 재무설계 상담 후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비, 저축, 투자, 연금저축액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 또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안창희와 정순희(2009)는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재무성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재무교육과 재무설계가 경제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무행동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외적 통제위치자에

게 재무교육과 재무설계가 절실히 요구되며, 외적 통제위치자는 권위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Strickland, 2017) 신뢰 가능한 재무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Lusardi & Mitchell(2011)의 연구 결과, 재무지식과 재무계획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은퇴계획을 마련하는 사람은 비공식적인 정보원보다는 은퇴관련 세미나 혹은 재무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립적이며 믿을 수 있는 재무교육 및 재무설계 플랫폼과 이에 대한 쾌적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또한 내적 통제위치자의 경우, 은퇴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있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위험성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에 있어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성향 등도 있으므로(Pinger et al, 2018; Salamanca et al, 2013; Strickland, 2017) 내적 통제위치자에 대한 재무상담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자료와 대상 선정에 있어 다방면의 숙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실제 은퇴가구가 보유한 은퇴자산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한계로 연구 대상을 부부가구 남성 가구주로 한정해야만 했다. 2차 자료 상 은퇴 부부가구 중 여성 가구주가 극소수이며, 비혼 은퇴 1인 가구 역시 자료상 소수에 불과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또한 가구 내에서 주 경제활동자와 주 재무의사결정자가 구분 가능하다면 통제위치라는 개인의 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무의사결정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가구주와 주 재무의사결정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은퇴준비행동을 부가조사에서만 한 차례 측정하였기 때문에 은퇴준비행동이 이루어진 시점을 파악하기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자산의 보유 시기가 은퇴준비행동 이전인지, 혹은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의 액수가 아닌 보유 여부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은퇴준비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은퇴준비행동과 준비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엄밀한 모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해 통제위치를 비롯한 개인특성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McGee & McGee(2016)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격요인이 학계 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요인이 불가지론적이라 측정방식과 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Cobb-clark et al (2016)은 저축행동 연구에서 왜 통제위치가 중요한지, 가계의 통제위치와 저축행동의 관계에 대해 자문(自問)하며 통제위치의 유의성에 대한 의문은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다양한 연구전략과 데이터를 통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통제위치 또한 개인 특성의 하나이지만 은퇴준비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한 통제위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또한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성호. (2012). 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 사적연금소득원 추정. 응용경제, 14(2), 175-212.

권석만. (2017).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경아. (2013). 최근 국내 중,고령층의 공,사적 노후준비 격차발생에 관한 연구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 분석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3(2), 23.

김기홍, 양세정. (2017). 은퇴가구의 경제상태 및 은퇴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0(1), 27-60.

김난도. (2019). 트렌드 코리아 2020 :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20 전망. 서울: 미래의 창.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 35-52.

김신아, 한윤선, Kim, Shinah, & Han, Yoonsun. (2016). 지역사회 유해 환경과 청소년의 음주흡연 경험과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보호 작용.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 아동학회지, 37(1), 37-48.

김영태. (2013). 대학생의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11), 5488-5496.

- 김예슬. (2017). 공적연금이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 : 가구소득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엄기욱. (2014).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197-221.
- 김헌수. (2017). 노후소득 적정성 개념, 평가지표, 그리고 추정 방법론에 관한 문헌연구. 사회보장연구, 33(1), 1-32.
- 김헌수, 김경아. (2014). 우리나라 개인의 자산 선택 행위와 공적연금제도와 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7(3), 95-125.
- 김혜경, 여윤경. (2011). 개인의 은퇴자산 부족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금융연구, 25(2), 83-115.
- 나혜림. (2013).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1), 27-60.
- 노안영, 강영신. (2003).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광수, 양재영, 주소현. (2016). 개인재무설계. 서울: 경문사.
- 박기경. (2016). 나에게 발생한 긍정적인 일은 기부를 증가시키는가?-통제소재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7(4), 35-56.
- 박주영, 유소이. (2018). 부모의존 독신성인 자녀를 둔 비은퇴자 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한 평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11(3), 57-77.

-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변준석, 홍희정. (2017). 노인 가족에 있어서 주택연금 노후소득보장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2(1), 61-76.
- 백은영. (2009). 은퇴 만족도(Retirement Satisfaction) 결정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9(5), 107-115.
- 백은영. (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성지미, 안주엽. (2011).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175-212.
- 손종철. (2010).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10(2), 125-153.
- 송현주, 임란. (2017).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공단 연구보고서.
- 심현정. (2017). 은퇴와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종범, 전승훈. (2006). 노후 대비와 가계저축-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분석. 공공경제, 11, 123-149.

- 안창희, 정순희. (2009). 자산수준별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21-41.
- 여윤경. (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41.
- 여윤경, 김진호. (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2), 1.
- 여윤경, 정순희, 문숙재. (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 오종윤, 최현자, 이지영. (2014). 재무복지수준으로 측정된 재무설계상담의 효과: 은퇴설계에 적용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149-171.
- 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2), 25-57.
- 원석조. (201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공동체
- 이규만, 이기은, 임효창. (2005). 통제위치 성향의 조절효과. *산업경제연구*, 18(5), 2087-2107.
- 이선우. (2017). 은퇴자금충분성에 따른 은퇴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우, 김민정, 최현자. (2018). 비은퇴자의 은퇴포트폴리오 관리 의사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1), 61-89.
- 이승신, 김기욱, 김경자, 심영, 정순희. (2003). *가계경제분석*. 서울: 신정.
- 이윤경, (2019). 로짓모형을 이용한 노후준비의 결정요인 분석 :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1), 117-146
- 이지영, 최현자. (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215-230.
- 이현숙, 주소현. (2014).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1-32.
- 전승훈, 강성호, 임병인. (2009).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충분성. *경제학연구*, 57(3), 67-100.
- 전희정, 임란. (2011).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와 특성 분석. *보험학회지*, 90, 107-135.
- 정기백, 최석봉. (2019). 구성원의 공감능력이 개인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내재적 통제위치와 상호호혜성의 3차항 조절효과. *경영경제연구*, 41(3), 117-144.
- 정다운, 차경욱. (2017). 노인가구의 부채부담과 부채상환가능성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10(3), 159-187.

- 정지영, 양세정. (2013).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 세대간 자산이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99-219.
- 정운영, 백은영. (2009). 은퇴에 대한 의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115-139.
- 최은영. (2018). 은퇴시기와 가계자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9(3), 1075-1088.
- 최현자, 주소현, 김민정, 김정현. (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189-214.
- 최현자, 김민정A, 이지영, 김민정B. (2012). 경제수명의 산정을 통한 한국 가계의 은퇴준비도 측정. Financial Planning Review, 5(4), 47-71.
- 최현자, 김민정, 나혜림, 심현정, 한지형, 최홍철. (2017). 한국 가계의 은퇴준비도 측정: 행복수명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0(1), 1-25.
- 최혜지, 이영분. (2005).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415-435.
- 한경혜, 김주현, 백옥미. (2012).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133-162.
- 홍성희, 박인숙. (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홍은실. (2012). 여성소비자의 내적통제중심성과 소비행동, 생활만족도.
생활과학연구지. 22, 15-23

[국외문헌]

Anderson, C. R. (1977).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s, and performance in a stress sett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4), 446.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 1173-1182

Bradlow, E. T., Niedermeier, K. E., & Williams, P. (2012). (와튼 스쿨이 공개한 금융소비자를 움직이는) 파워 마케팅 (김희정 역). 서울; 한국FP협회. (원서출판 2009).

Britt, Sonya, Cumbie, Julie A., & Bell, Mary M. (2013). The influence of locus of control on student financial behavior.(Report). *College Student Journal*, 47(1), 178-184.

Bowles, S., Gintis, H., & Osborne, M. (2001). Incentive-enhancing preferences: Personality, behavior, and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55-158.

- Brounen, D., Koedijk, K. G., & Pownall, R. A. (2016). Household financial planning and savings behavior.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69, 95-107.
- Cobb-Clark, D. A., Kassenboehmer, S. C., & Sinning, M. G. (2016). Locus of control and saving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73, 113-130.
- Hardy, M. (2011). Rethinking Retirement. In Settersten, R. A. & Angel, J. L. *Handbook of Sociology of Aging* (pp. 213-226). New York, NY: Springer New York.
- Hershey, D. A., & Mowen, J. C. (2000).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0(6), 687-697.
- Hirsh, J. B. (2015). Extraverted populations have lower savings r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1, 162-168.
- Hollenbeck, J. R., Williams, C. R., & Klein, H. J. (1989).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antecedents of commitment to difficult goa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1), 18.
- Hoorens, V., & Buunk, B. (1993). Social Comparison of Health Risks: Locus of Control, the Person Positivity Bias, and Unrealistic Optimism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4), 291-302.
- Hurd, M., & Rohwedder, S. (2003).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Anticipated and actual declines in spending at retirement (No. w958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esavayuth, D., Ko, K. M., & Zikos, V. (2018). Locus of control and financial risk attitudes. *Economic Modelling*, 72, 122–131.
- Li, J., Montalto, C. P., & Geistfeld, L. V. (1996). Determinants of financial adequacy for retirement.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39.
- Lown, J. (2008). Retirement Savings ADEQUACY for The Baby Boom Generation. *Journal of Personal Finance*, 7(1), 109–134.
- Lusardi, A., & Mitchell, O. S. (2011).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Implications for retirement wellbeing (No. w1707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addux, J. (1995). Self-efficacy theory. In Maddux, J(Eds.),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Springer.
- McGee, A., & McGee, P. (2016). Search, effort,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26, 89–101.
- Pinger, P., Schäfer, S., & Schumacher, H. (2018). Locus of control and consistent investment choices.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75, 66–75.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

- Rotter, J. B. (1990).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 case history of a variable. *American psychologist*, 45(4), 489.
- Rowe, J. W., & Kahn, R. L.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4811), 143-149.
- Rowe, J., & Kahn, R.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0.
- Salamanca, N., de Grip, A., Fouarge, D., & Montizaan, R. M. (2013). Locus of control and investment in risky assets, No 52, Research Memorandum, Maastricht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GSBE)
- Schäfer, K, (2016)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on Private Retirement Savings in Germany. SOEPpaper No. 867.
- Schnitzlein, D. D, & Stephani. J. "Locus of Control and Low-wage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53 (2016): 164-77.
- Specht, J., Egloff, B., & Schmukle, S. (2013). Everything Under Control? The Effects of Age, Gender, and Education on Trajectories of Perceived Control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German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49(2), 353-364.
- Strickland, B, R. (2017) In Reich, J., & Infurna, F.(Eds) *Perceived Control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the First 50 Yea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기타 참고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8) 삼성생명 은퇴준비지수 2018

통계청(2016) 2015년 생명표

한국노동연구원(2015)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

DIW(2013). SOEP scales manual. SOEP Survey Papers.

KOSIS(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UN(2019), World Population Ageing 2019

국가보훈처 예우보상

<https://www.mpva.go.kr/mpva/support/bohunpayView.do?id=2116>

국민연금 연금정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

https://m.geps.or.kr/g_sysinfo/sysinfo09.jsp?pDiv=6

군인연금 연금업무안내

<https://www.mps.mil.kr/info/penKindInfo.do>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fss/psn/intro/system/system1.jsp>

사학연금 알림마당

http://www.tp.or.kr:8088/tp/news/news_re_dictionary.jsp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http://kostat.go.kr/incomeNcpi/cpi/index.action>

한국은행 기준금리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progress.do?dataSeCd=01&menuNo=20065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

<https://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sp>

Abstract

A Study on Locus of Control,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and Retirement Asset Adequacy

Jeon, Youngho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continuous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beginning of baby boomers retirement. Various studies are also being conducted in academia on retirement preparation, regardless of major. In particular,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demographic, soci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but the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were insufficient to discuss individual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This study is interested in locus of control. A locus of control is a generalized expectation of human beings that results in an internal control or an external control depending on whether people have expectations that outcomes come from me or come from the outside,

Depending on locus of control, people may have different behavior in certain situation.

In this study, we wanted to explore how locus of control affect the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of household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effects of household asset and debt holdings on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and retirement asset adequacy, and verified locus of control had a moderating effect on it.

For the study, the Korean Laboratory and Income Panel Study 18th Survey (2015) was us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on 156 male household owners aged 50 to 74. In this study,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refer to private retirement preparation. such as personal pensions, deposits, installment savings, savings insurance, real estate, stocks and bonds, that individuals has responsibility for holding those asset.

Retirement asset adequacy is defined as whether a couple has more retirement assets than they need to survive to life expectancy. Retirement assets were estimated by subtracting total debt from financial assets, owner-occupied house, real estate, lease deposits and total pension amounts. expected retirement living costs estimated up to life expectancy based on current living cos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useholds with insufficient retirement asset accounted for 31.1% of the retirement asset-deficient group, even though they did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This finding suggests that families currently preparing for retirement need help preparing for a successful retireme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heck their retirement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plann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Second, households with financial assets, public pensions and debt

were more likely to do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The preceding study supports the above findings that more financial asset holder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retirement preparation by holding private pensions and savings (Kim, 2013). If the income is expected to be stable, the holdings of risky assets increase (Kim & Kim, 2014). Therefore, in terms of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efforts to secure economic stability by holding financial assets and public pensions. In terms of debt holdings, Jung & Cha (2017) said that households holding debt had significantly more total asset and real estate than households without debt holding. Further research on the role of debt in retirement readiness is required. In this context, people who can afford debt are likely to have a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so follow-up studies on the role of debt in retirement preparation are required.

Third, holding public pension and home-ownership affect retirement asset. Public pensions and home-ownership can be regarded as the important retirement assets. In particular, reverse mortgage can provide a stable source of income after retirement.

Fourth, locus of control has a positive effect on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but it does not affect the retirement asset adequacy, considering the locus of control, it is necessary to plan the financial behavior in accordance with the household's retirement plan. In particular, there is a considerable number of households that do not have enough retirement asset, even though they did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cognize the goals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and to comprise and manage a suitable portfolio. In addition, retirement preparation requires long period, in this respect, it should be planned and systematically managed (Lee et al, 2018).

In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reparation for economic retirement,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financial consumers by implementing customer segmentation considering the locus of control. It also needs to conside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liable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planning at the public service level. In case of external control people, it is likely that they will depend on experts and lack the willingness to meet their goals to raise enough retirement asset. Internal control people are enthusiastic in retirement prepar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a high level of resistance to deprivation of liberty, tend to hold risky asset and invest inconsistently (Pinger et al, 2018; Salamanca et al, 2013; Strickland, 2017) Financial counseling should take account of these characteristics.

Lastly, locus of control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retirement asset adequacy, an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retirement households. In other words, locus of contro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aising sufficient retirement asset. Therefore, internal control people are likely to perform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smoothly, but they should be aware that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does not guarantee retirement asset adequacy and overconfidence about their ability to do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Through this study, we examined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and retirement asset adequacy in Korean households, and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According to the locus of control, there was a difference in retirement prepar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e applicability of locus of control as a major psychological variable affecting financial behavior. In addition,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and support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locus of control to prepare for successful retire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locus of control in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This study used secondary data to identify retirement households' retirement assets as accurately as possible. As a result, there were limitations in defining subjects and measurement variable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refore, continued interest and follow-up studies should be required to clearly understand the effect of locus of control on retirement preparations.

**keywords : Locus of Control, Retirement Preparation,
Retirement Planning Behavior, Retirement Asset Adequacy,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Student Number : 2018-21662